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제주지역을 사례로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產教育學科

李 東 燮

2021年 8月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제주지역을 사례로 -

指導教授 鄭 光 中

李 東 燮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8月

이동섭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年 8月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Region Legend and People
- A Case of Jeju Region -

Dong-Seob Lee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wang-Joong Jeong,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 및 방법	3
II. 지역 및 지역사 교육의 이해	5
1. 지역의 이해	5
1) 지역의 개념	5
2) 지역으로서의 국가와 제주	7
2. 지역사 교육의 이해	8
1) 지역사의 개념	8
2)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	9
3) 지역사 교육 선행연구	10
III. 제주 지역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12
1. 교육 소재 선정 기준: 전설·인물	12
2. 제주 지역의 전설·인물	13
3. 교육프로그램 구성	15
IV. 제주 지역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7
1. 교육프로그램 개발	17
1) 지역의 전설 교육프로그램: 이어도	17

2) 지역의 존경받는 인물 교육프로그램: 김만덕	32
3) 지역의 안타까운 인물 교육프로그램: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44
2. 교육프로그램 적용	56
1) 교육대상: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생	56
2) 교육방법: 토론의 도입	57
3) 교육적 효과	63
V. 결론 및 제언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3

표 목차

<표 1> 언론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제주 여행객과 이주민 증가	14
<표 2> 교육프로그램별 주제와 학습목표	15
<표 3> 언론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이어도의 가치	21
<표 4> 언론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이어도의 분쟁 가능성	25
<표 5>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개요	28
<표 6>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도입	29
<표 7>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전개	30
<표 8>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확장	30
<표 9>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정리	31
<표 10>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개요	40
<표 11>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도입	41
<표 12>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전개	42
<표 13>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확장	43
<표 14>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정리	43
<표 15>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개요	52
<표 16>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도입	53
<표 17>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전개	54
<표 18>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확장	54
<표 19>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정리	55

<표 20>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전문기술과정 교양과목 현황	56
<표 21> 토론 사전준비 단계	61
<표 22> 토론 진행 단계	62
<표 23> 토론 마무리 단계	62

그림 목차

<그림 1>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 단면도	22
<그림 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조물과 3차원 입체 영상	22
<그림 3> 이어도의 위치	23
<그림 4>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 개요도	24
<그림 5>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34
<그림 6> 김만덕 기념관	35
<그림 7> 김만덕 객주터	35
<그림 8> 복원된 토성	46
<그림 9> 전시실	46
<그림 10> 순의비	47
<그림 11> 순의문	47
<그림 12> 항파두성 축조 기록화	50

【국문초록】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제주지역을 사례로 -

이 동 섭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정 광 중

이 연구는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에 대해 학습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이란 개념은 마을 단위부터 국가를 거쳐 대륙과 세계까지 수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행정단위로서의 지방’의 의미로 사용한다. ‘지역사 교육’은 교육생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와 지역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기에 교육생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 교육의 방법은 크게 ‘분산적 접근방법’과 ‘주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되며 연구자는 이 중에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주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지역별로 지역사 교육의 소재를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제주도에 적용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 익숙한 내용으로 접근이 쉬운지,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제주도에서 지역의 전설로 ‘이어도’, 지역의 존경받는 인물로 ‘김만덕’, 지역사 속 안타까운 인물로 ‘삼별초 항몽 당시의 제주민’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소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전설 이어도가 수증압초로 실재화되면서 제주가 이상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김만덕의 양인 신분 회복과 관련해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삼별초 항몽에 부여하는 역사적 의미만큼 제주민들의 희생과 고통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교육프로그램은 각각의 교육내용에 따라 1개씩, 총 3개를 개발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은 다시 1차시, 2차시, 3차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차시에서는 교육 소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존의 일반론과 새로운 시각을 대비하며 강의식으로 전달한다. 2차시에서는 기존의 일반론을 대변하는 측과 새로운 시각을 대변하는 측으로 입장을 나누어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3차시에서는 2차시의 패널 입장을 반대로 바꾼 채 특정 상황을 가정한 역할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3차시 끝부분에 교육자가 2차시와 3차시의 주요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유사한 다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며 교육생이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스스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 연구가 지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한정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가 이어져 더욱 정교한 학습모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지역, 지역사 교육, 제주, 이어도, 의인 김만덕, 삼별초 항몽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는 현재가 되고 곧 미래가 된다.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현재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있게 된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역사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교육은 식민지 경험과 독재정권의 등장,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국가사 중심의 교육이었다. 또한 입시제도라는 틀에 맞춰 정형화된 교과서가 역사교육의 기준이 되며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교육생이 속한 지역에 대해 배우고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 지역사 교육은 교육생들이 역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비교, 정리하면서 역사 인식 능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²⁾ 교육생이 익숙한 주변 이야기를 소재로 하기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교육생과 친분 있는 사람이 지역사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 교육을 통해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경험을 축적하면 향후에 직면할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해 종합적 시선으로 평가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갖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사 중심의 역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역사에 대해 지역 중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찾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소재로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선정하고 제주도에 적용하여 각각 이어도, 김만덕,

1) 유승광(2006),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역사와 담론』 44, p.302.

2) 신용균(2017), 「거창지역의 기록과 지역사교육」, 『역사교육』 141, p.216.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패넬토론과 역할토론을 교육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연구의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과 지역사의 개념을 파악하고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지역사 교육 소재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제주의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체화한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화된 교육 소재에 적용하여 개발한다.

넷째,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토론을 도입한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시선의 존재와 입장 차이에 공감하는 등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지역에 관한 전설과 신화, 각종 유물과 유적, 역사 기록물, 전쟁과 반란, 민간 신앙, 축제, 인물, 자연환경과 재해 등 지역의 역사를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소재를 선정하되 어느 지역이나 적용 가능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 후 제주도에 적용하였다. 선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편성, 독립성, 비판 가능성, 적용 가능성이 충분한가를 고려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편성)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소재여야 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독립성) 지역민의 시각과 외부인의 시각이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두 시각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교육 소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비판 가능성) 기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역사적 사실이 너무 명백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소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용 가능성) 새롭게 문제점을 제시한 방식이 다른 사안에도 적용 가능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로서 제한적이고 다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면 교육 소재의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위에 제시한 기준들에 맞춰 선정된 연구대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의 전설을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가?’로 제주의 전설 중 ‘이어도’를 선정하였다.

둘째, ‘지역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로 ‘의인(義人) 김만덕’을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사에서 안타까운 인물은 누구인가?’로 ‘삼별초 항몽 당시의 제주민’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세 가지 소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지역의 개념과 지역으로서의 국가와 제주의 상호 관련성, 지역사의 개념과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사 교육에 대한 선

행연구를 분산적 접근방법과 주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산적 접근방법은 국가사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사 교육을 보충적으로 다루는 반면, 주제적 접근방법은 지역사를 중심에 두고 관련된 국가사를 다루는 방식으로 지역 중심적 시각을 강조하는 이 연구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주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 적용하였다. 교육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1차시부터 3차시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진행 순서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토론을 도입한 교육의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유의사항, 교육 실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Ⅱ. 지역 및 지역사 교육의 이해

1. 지역의 이해

1) 지역의 개념

‘지역’과 관련한 연구의 출발은 지역의 대상 혹은 범위의 설정이다. 지역은 ‘일정하게 나눈 공간’이라는 의미³⁾로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공간을 나누는 기준을 달리하기도 한다. 황성우(2010)에 따르면 전통적인 지역 연구에서의 지역 개념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 첫째, 국경선을 경계로 하는 국가로서의 지역 개념이다. 둘째, 한 국가 내의 지리적 단위 및 행정적 단위의 지역 개념이다. 셋째, 특정 민족이나 언어, 종교 등으로 구분하는 지역 개념으로 국경을 접한 국가들의 일부 지역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넷째, 몇몇 국가 혹은 그 이상의 수를 포함하는 국가군으로서의 지역 개념으로 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등의 구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이 네 가지 개념의 구분과 적절한 조합이 연구대상으로서의 지역을 정의하는데 적절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역의 개념을 지리적으로 국가 단위, 국가내 행정단위로 구분하기도 하며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 동남아시아, 아메리카대륙,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인접 국가들을 포함하거나 서울, 인천, 경기 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처럼 행정단위의 구분을 달리하기도 한다. 문화적으로는 인종, 종교, 언어, 생활방식 등에 따라 유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한자 문화권, 유럽 문화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젓가락 문화권, 숟가락 문화권으로 나누거나 지리와 문화를 결합해서 북서유럽 문화지역, 남부유럽 문화지역, 동부유럽 문화지역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임병조·류제현(2007)은 “이제 지역은 더 이상 수치나 물리적 형태를 근거로 설정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9.24, 검색어: ‘지역’.

4) 황성우(2010),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지역” 개념에 대한 단상」, 『Russia & Russian Federation』 1-1, pp.37-38.

이 작용하는 주관적 구성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⁵⁾며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을 기반으로 하던 전통적 지역 개념으로는 지역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는 지역을 설명할 수 없으며 동일한 질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재현(2005)은 전통적 지역 개념이 명확한 지역 구분에 바탕을 둔 폐쇄적 개념이었다면 세계화와 함께 상호작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등장한 지역 개념으로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관련된 스케일, 장소, 네트워크, 공간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케일은 크기와 규모를 분석하는 척도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자본과 생산활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변형되는 동적인 공간들이 상호 교차하는 경계의 유동성에 따라 그 의미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장소는 지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개인의 공간 경험이 축적된 곳으로 이에 따른 주관적 인식에 의미를 두어야 하며, 네트워크는 지역 간의 상호관계와 연결성이 핵심으로 스케일과 장소에 고착되지 않는 연속적 공간성을 고려해야 하고, 공간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탈영역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으며 장소로서의 공간에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⁶⁾

지역의 개념은 지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하며 동질성과 차이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대륙이 되기도 하며, 특정 국가 또는 행정구역으로서 하나의 지방으로 볼 수도 있었다. 자본과 기술의 발달로 공간적 제약을 넘어 국가와 제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실시간 정보교류가 당연시되면서 지역을 대하는 개념도 바뀌고 있으며 철학적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리적 경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 지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야 한다. 세계화로 인해 지역에 따른 동질성과 차이점이 축소되고 통폐합되어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간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현상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여전히 지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지역 개념은 유효하며 여기에서 시작해

5) 임병조·류제현(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 동질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p.583.

6)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pp.2-10.

주관적 인식에 따른 개방성과 기술발달로 인한 유동성이 더해지며 경계에 대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2) 지역으로서의 국가와 제주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에서는 지방으로서의 지역에 대해 그 고유한 역사적 경험들을 고려하지 않았었다. 국가사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선택된 것들만 제한적으로 국가사에 반영되고 국가사 중심의 시각에서만 해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의 입장에서 제주 지역은 국가의 지리적 경계에 속한 행정구역인 지방 중의 하나로서 한국사에서 ‘변방’에 해당하며 역사의 기록과 해석에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삼별초 항몽에서 제주 지역은 최후까지 항전한 격전지로서 장소적 의미만 부여될 뿐 당시 제주의 상황과 피해 정도, 제주민의 고초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태도는 지역을 확대해 동아시아로 넓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흔히 사용하던 ‘오랑캐’라는 말은 중국에서 주변의 종족을 미개하다며 멸시하던 말인데, 우리를 중국과 동일시하며 함께 오랑캐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중국이 동이(東夷)⁷⁾라 하여 한국과 만주와 일본을 동일시하며 한데 묶어 낮잡아 부르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처럼 인식되며 그 고유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세계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사의 큰 갈래 중 하나인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한국사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데 세계사라고 다를 바 없다. 세계와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에서 한국은 ‘변방’에 속하고 있다.

‘변방’이라 치부되며 소홀히 대하던 지방으로서의 각 지역을 주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우선 인정해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만의 고유함을 인식하고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시선의 전환은 국가사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해석을 인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7) ‘동이’는 중국에서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동쪽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로서 한국, 일본, 만주 등의 민족을 가리킨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11.25, 검색어: ‘동이’.

2. 지역사 교육의 이해

1) 지역사의 개념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교육생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인 지방으로서의 지역을 의미한다. 지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을 사용하였으나 국가의 구성요소로 보지는 않고 대등한 관계로서의 지역으로 본다. 교육생이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를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지역사를 ‘지방사’와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사는 서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종속의 의미를 띠는 측면이 있다. 학술적으로 서울을 지방이라는 용어 안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지방이라는 용어에 종속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러한 종속의 의미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지역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앙 또는 서울과 같은 비중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⁸⁾

허영란(2017)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이 확대되며 지방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사의 한 부분으로서 전체사의 재구성이라는 견해가 강했고 독립된 분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에 종속이 아닌 상대성의 개념으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위해 지역사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⁹⁾

이영호(2010)는 지역은 인간 생활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국가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간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 지역은 대등한 가치를 가진 독자적 공간이 되며 행정구역에 갇혀있던 지방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역사의 보편성까지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8) 황현정(2015), 「지역사 수업의 실행과 정체성 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pp. 151-152.

9) 허영란(2017),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pp.350-355.

10) 이영호(2010), 「지방사에서 지역사로 - 인천을 사례로 하여-」, 『한국학연구』 23, pp.297-298.

2)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

지금까지의 역사교육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과 입시제도라는 규격화된 틀 속에서 통일된 기준과 범위에 맞춰진 국가사 중심의 교육이었다. 특히 식민지였던 기억과 계속된 분단 체제, 독재정권의 정당성 확보 등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에 타당성을 부여하였고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지역에 대한 역사교육은 계속 소외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와 이에 따른 차이와 특수성이 있음을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며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만 교육해온 결과, 역사 문제에 호기심을 갖거나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에 질문을 던지는 역사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¹¹⁾

지역사는 국가사에서는 찾기 어려운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지역과 국가의 대립, 지배층과 피지배층인 지역민의 대립, 지역민 간의 대립 등 다양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사의 다층적, 다각적 시각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지역사 교육이다. 교육생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각을 비교하고 학습하며 국가사 중심의 획일적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해준다.¹²⁾

지역사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배우으로써 역사이해에 도움을 주고 생활 주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역사학습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준다. 둘째, 현장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현실감과 생동감 있는 수업을 가능케 한다. 셋째, 지역사는 지역민의 문제해결의 역사이므로 지역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할 수 있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획일적인 국가사 중심 교육은 역사 해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약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제는 지역사 교육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 역사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역을

11) 유승광(2006), 앞의 논문, pp.302-305.

12) 신용균(2017), 앞의 논문, pp.216-217.

13) 최태정(1997), 「향토사 학습의 원리와 지도」,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pp. 354-355.

중심에 둔 관점으로 새롭게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사 교육 선행연구

지역사 교육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특정 지역의 역사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 교육이다. 전국 각 지역 중 특정 지역의 역사를 정리한 후 이에 대한 학습을 제안하는데, 도 단위보다는 시·군 단위로 세분화한 연구가 더 많았다. 특정 지역의 역사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시기가 한정되기도 하고 지역사를 내세웠지만 일반적인 역사 학습으로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¹⁴⁾

둘째는 수업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분산적 접근 방법과 주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산적 접근방법은 연간 진도 계획에 따라 통사 학습 과정에서 본시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고 계속 본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다. 주제적 접근방법은 지역사 교재를 하나의 주제로 내세워 지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함으로써 지역사와 국가사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는 한편 지역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역사적 창의력과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분산적 접근방법은 본시 학습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심화할 뿐이며 지역의 역

14) 신형석(2017), 「지역 사회 문화자원을 활용한 현장 학습 수업 방안 연구: 노원구 백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승광(2003), 「향토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7; 이문숙(2003), 「서천지역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국사학습 지도방안」,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경(2005), 「향토 자료의 활용을 통한 역사학습 지도방안과 효과: 경기도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상태(2007), 「중학교 국사교육에서 충북 지역사 학습」,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난숙(2008),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중학교 국사 수업 방안 연구: 경기도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선희(2008),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 지역사 학습자료 활용방안: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희(2010), 「중학교 국사 교육과 지역사 학습: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낙찬(2010), 「보령지역 향토사료를 활용한 국사교육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도윤지(2013),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부원(2014), 「역사교육에서의 향토사 활용방안 연구: 강릉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현주(2012), 「예산 역사문화의 특징과 역사교육 활용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주(2014), 「지역정체성 향상을 위한 지역박물관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안산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사적 자료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주제적 접근방법은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도록 하고 지역의 자료를 동원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지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해준다.¹⁵⁾

이 두 가지 접근방법 중 먼저 분산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주제적 접근방법을 통한 지역사 교육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주제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¹⁶⁾

15) 송춘영(1990),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鄕土史)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 pp. 24-29.

16) 박화자(2000), 「주제접근법을 통한 향토사 교재의 지도 방안」, 『역사교육논집』 26, p.243.

Ⅲ. 제주 지역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1. 교육 소재 선정 기준: 전설·인물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으로, 각 지역별로 교육 소재를 선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의 전제 조건으로,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일부 지역에만 특정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무덤 유적’을 교육 소재로 한다면 고인돌과 왕릉이 다수 분포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교육내용과 방향은 전혀 다를 것이며, 교육 소재로 삼을 무덤 유적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구술사 활용’을 교육 소재로 한다면 지역별로 구술사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고 활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면 이 또한 공통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연구자는 이러한 보편성을 전제로 두고 아래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민 상당수가 알고 있는 소재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 특정 연령대나 집단만이 익숙한 소재는 피해야 한다.

둘째, 지역과 외부의 시각이 충분히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소재여야 한다.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시각의 차이가 클수록 교육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소재여야 한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교육 소재로서 적합하지 않다.

넷째, 비판적 접근의 관점이 타당해야 하며, 유사한 다른 사안에도 대입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하고 제한적인 관점이라면 각 지역별로 교육 소재를 선정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의 전설’과 ‘지역의 인물’ 두 가지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의 인물’을 다시 ‘지역이 존경하는 인물’과 ‘지역의 안타까운 인물’로 세분화했다. 어느 지역이나 존재하고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이며 보는 이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등 각 선정 기준들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지방 자치의 활성화도 함께 고려하였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 자치가 시작된 이후 각 지역이 경쟁하듯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탑, 공원, 건물 등을 짓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국가 정책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다른 지역보다 빨리, 화려하게 내세우며 추진하다 보니 새롭게 제기할 문제점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교육 소재로서의 활용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정된 교육 소재를 교육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첫째, 지역의 전설을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둘째, 지역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셋째, 지역의 안타까운 인물로 재조명이 필요한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구체화한 내용을 제주도에 적용하여 제주의 전설 중 ‘이어도’, 제주의 존경하는 인물 중 ‘김만덕’, 제주의 안타까운 인물로는 ‘삼별초 항몽 당시의 제주민’을 선택하였다.

2. 제주 지역의 전설·인물

제주도에 대해 널리 알려진 표현으로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三多島)와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삼무도(三無島)가 있었다. 최근에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으로 불리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지역으로서 살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은 곳으로 인식되며 <표 1>과 같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표 1〉 언론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제주 여행객과 이주민 증가

보도일자	기사 제목
2012.12.10.	제주로 ‘국내 이민’ 크게 늘었다 『동아일보』
2015.11.25.	10월 국내선 이용자 수 사상최대.. 제주여행 증가 영향 『조선비즈』
2016.02.01.	‘제주 이민’ 열풍... 작년 제주 순유입 인구 매월 1000명 이상 늘어 『미디어제주』
2019.11.01.	가을 제주관광 호황.. 10월 관광객 작년 대비 12%↑ 『연합뉴스』
2020.01.15.	제주여행 트렌드는 ‘머무는 여행’ ‘식도락’ ‘한달살이’ 『경향신문』
2020.01.29.	지난해 항공여행객 역대 최고... 제주공항 40.7% 성장 『제민일보』

출처: 연구자 재구성, 검색일: 2020.12.6.

그러나 제주도의 역사는 제주를 수난의 섬이라 부르게 한다. 아름다운 자연은 척박한 땅과 혹독한 바다, 거센 바람이 되어 제주에 인류가 정착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재난을 몰고 왔다.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문화는 변방의 미개함으로 치부되면서 교화(教化)의 대상이 되었고 중앙에서 과견된 탐관오리의 계속된 수탈과 외부세력의 침략은 제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제주민은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 언젠가는 다다를 수 있는 고통도 배고픔도 없는 이상향을 꿈꾸었는데 그곳을 ‘이어도’라 불렀다. 가까운 이의 죽음은 ‘이어도’에 갔을 것이라며 위로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어도 사나’를 노래하며 희망을 꿈꾸었다.

상상 속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희망의 존재가 된 인물도 있었다. 1790년 무렵 자연재해에 의한 대기근으로 제주민의 20~30%가 굶어 죽었다. 이때 ‘김만덕’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제주민을 구휼하였는데, 그녀는 제주민으로서 스스로 제주민을 보살피고 아픔을 함께한 대표적인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제주민의 수난 중 본격적인 외세에 의한 수난은 ‘삼별초 항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별초 항몽은 국가사적 입장에서 몽골에 끝까지 저항한 역사로 인식되고 있으나 제주민 입장에서는 제주를 점령한 삼별초가 외부세력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며,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토벌한 이후 몽골군이 제주에 잔류하고 제주가 원의 직할지가 되었음을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제주가 대

리 전쟁터가 되면서 제주민이 겪었을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항몽의 최후 격전지로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 교육프로그램 구성

지역의 전설과 인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프로그램별로 <표 2>와 같이 주제에 맞는 학습목표를 설정한다.

<표 2> 교육프로그램별 주제와 학습목표

구분	주 제	학 습 목 표
전설	지역의 전설을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전설의 의미를 학습한다. - 지역에서 전설이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구현되는 모습을 학습한다. - 전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다.
인물	지역의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에 대한 일반론을 학습한다. - 인물의 삶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지역사에서 안타까운 인물은 누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타까운 인물이 생겨난 이유와 당시 상황에 대해 학습한다. - 안타까운 인물에 대한 인식 정도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출처: 연구자 작성

둘째, 학습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강의식으로 전달하되 기존의 일반론을 지역 중심적 시각이나 새로운 시각과 대비시키며 설명한다. 또한 핵심 내용 위주로 개조식으로 간략히 진행하며 동영상과 이미지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생의 관심을 일으킨다. 전달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핵심어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과 느낌 등을 반복해 질문하며 교육생의 참여를 계속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교육생이 교육 소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달하되 교육생이 자신만의 관점과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인식하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이때 교육생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없어야 한다. 교육자는 각 교육생별 해결방안이 모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방향은 제시하되 결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생이 주도하는 진행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진행에 토론을 도입하거나 교육생이 직접 사전조사를 거쳐 발표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게임 형태를 취하거나 멀티미디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체험이나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실질적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생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진행 방식의 결정은 교육자의 역량과 고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교육 중 제시된 각종 관점, 논리 사고의 과정, 수많은 가능성을 분류 및 요약하고 도출된 해결방안을 정리한다. 교육자는 특정 의견에 치중되지 않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중립적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확장을 위해 교육 소재와 유사한 다른 사례를 교육생에게 제시하고 교육내용과 비교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과정을 반복하도록 안내한다. 유사 사례는 교육생이 스스로 교육 진행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보며 자기주도로 학습이 가능한 사례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별 과제로 제출하고 다음 교육에서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체화하여 미래에 직면할 복잡한 사회현상이나 어려움에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IV. 제주 지역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교육프로그램 개발

1) 지역의 전설 교육프로그램: 이어도

(1) 교육 목표

지역의 전설은 현대에 와서 다양한 목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의 축제와 관광상품 개발에 이용되기도 하고 지역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체성 연구의 중요 소재가 되기도 한다. 제주의 경우 이어도 전설이 해양으로의 진출과 해저자원 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의 전설인 이상향 이어도와 국가에서의 수중 암초인 이어도가 어떻게 공존하게 되었고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제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이어도의 미래는 무엇일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교육 내용

① 이어도에 대한 개념

이어도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전설의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가 설립된 수중 암초의 이어도, 두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어도는 “이승의 고통스런 삶이 끝나는 지점에 있다는 해양타계(海洋他界) 또는 남해상의 하얀 산호섬에 대한 전설”로 정의된다.¹⁷⁾ 또한, 이어도는 수중 암초(rock)로서 가장 얇은 곳은 해수면 아래 4.6m에 위치하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른다.¹⁸⁾

이렇듯 이어도는 때로는 전설 속 이상향의 섬으로, 때로는 수중 암초로도 불리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17) 한국민속대백과 사전(<https://folkency.nfm.go.kr>), 검색일: 2020.7.31, 검색어: ‘이어도’.

18) 이어도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ieodo.kr>), ‘이어도 바로알기’ 목록에서 <이어도의 형상>, 검색일: 2020.7.27.

이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전설의 섬 이어도

제주에서 전설의 섬 이어도는 민요와 구술로 남아있다. 제주 민요 중 맺돌노래와 방애노래의 이어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이어도이어라 이어도이어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이어 이어 이이도이어라)
이어 허맨 나 눈물 난다(이어하면 나 눈물난다)
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이어란 말은 하지말고 가라)
강남을 가난 해남을 보라(강남을 가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엿 해라(이어도가 반수이라고 하더라)

다음으로, 구술로 남아있는 이어도를 살펴보자.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제주인 뉴스』에 실린 진성기 관장¹⁹⁾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다.²⁰⁾

진성기 관장은 “해녀들은 비교적 이어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어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어도라는 말 자체는 매우 친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천면 조천리에 있었던 ‘장귀동산 일회한집’ 남자무당인 정병주씨의 본풀이에서 고동지와 여똥할망의 이야기가 본풀이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향토지 전문출판인으로 유명한 디딤돌출판사 박서동사장(71)은 1878년생인 할머니 이병화씨가 생전에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가 이어도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탄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다고 회고하였다. 구좌읍 월정리 출신인 외할머니가 “이어도 허라 이어도 허라”라는 타령을 하면서 맺돌을 갈자 할머니에게 ‘이어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배타고 나간 네 외할아버지가 이어도에 살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박서동씨는 “커서 어른이 되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의 섬으로 시름을 달래기 위한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19) 1964년부터 제주민속박물관을 운영하면서 2012년 3월 『제주도 민요 전집』을 출간하였다.

20) 양금희(2012.6.29), “양금희가 만난 진성기관장, 이어도 전설을 기록하였던 민속학자”, 검색일: 2020.8.1, 『제주인 뉴스(<http://www.jejuinnews.co.kr>)』.

위 인터뷰를 진행했던 양금희 시인²¹⁾은 계속해서 이어도 전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고 2017년 『제주일보』에 다음과 같은 칼럼을 실었다.²²⁾

조천은 이어도와 관련하여 ‘고동지와 여똥할망’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으로 말을 실고 가던 고동지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이어도에 도착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때 몰래 고동지를 따라온 여똥할망이 조천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자 ‘장귀동산당’ 당신(堂神)으로 모셔 그를 기리기 위한 당(堂)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모슬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78)씨는 “이어도에 대해서 오래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아버지·할아버지·할머니에게 늘 들었다. 저기 마라도 밑에 가면 이어도 섬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바다에서 죽으면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어도가 무서운 곳이거나 해서 기피하는 곳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조천 북촌리 고(77)씨는 “옛날에는 섬이라고 들었다. 옛날에 어른들이 제주도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제주도는 큰 섬이었고, 이어도도 섬이었다고 했다. 옛날에 (이어도에) 사람이 살다가 어느 시대부터 차츰차츰 바닷물 속으로 잠겨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하찮게 들어서(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어도사나 노래는 이어도(이상향)에 목적을 두면서 생활에 고달픔을 잊기 위해 이어도사나 노래를 불렀고,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노래였다”고 말했다. 장(84)씨는 “낭군님이 고기잡이 갔다가, 이어도에서 난파돼서 낭군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낭군님을 그리는 마음에서 이어도사나 노래가 나왔다고 알고 있다. 해녀들이 물질하러 갈 때, 지금은 기동선이니까 힘이 덜 들었지만, 전에는 노 저어 가려면 힘이 드니까 이어도사나를 부르면서 (물질하러) 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애월읍 고내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물질을 하며 상군해녀가 된 장(66)해녀는 “이어도하면 제주도 섬처럼 제주도 앞바다에 이어도 섬이 있는 줄 알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구나 생각했는데, 최근에야 물속에 있는 이어도라는 것을 알았다. 이어도 하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산간 지역으로 갈수록 이어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해안지역에 가까울수록 이어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나마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21) 2009년 『행복계좌』에 이어, 2017년 두 번째 시집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섬』을 펴냈다. 이예도문학회 회장과 『제주인 뉴스』 편집국장,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2) 양금희(2017.11.22), “[양금희] ‘이어도’ 문화 계승발전 시켜야”, 검색일: 2020.8.1,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해안지역은 특성상 바다에 물질을 나가거나 배를 타고 어업활동을 할 기회가 많았고,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되는 경우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배고픔도 없는 이어도라는 이상향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민요와 구술로만 남아있는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죽어서 가는 섬’, ‘이상향의 섬’, ‘고통도 배고픔도 없는 섬’, ‘고달픈 삶에 위안이 되는 섬’이었고 이어도 전설은 산간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에서 더 많이 전해져왔다. 이러한 피안의 섬 ‘이어도’가 지금은 수중 암초로 밝혀져 그 위에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지고 국제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③ 수중 암초 이어도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수중 암초에 걸려 좌초되면서 이 암초는 ‘소코트라암초(Socorta Rock)’란 이름을 얻었다. 1984년 제주대학교와 제주도 KBS 조사팀의 탐사로 암초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과랑도(波浪島)’라고 부르기도 했다. 2001년 국립지리원이 ‘이어도’로 이름을 붙인 후 지금까지 ‘이어도’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어도라 이름 붙인 수중 암초 위에 1996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착공을 시작하여 2003년 6월에 완공하였다.²³⁾

④ 수중 암초 이어도의 가치

수중 암초일 뿐인데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이름을 이어도로 공식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 이어도와 연관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의 크기와 그 관심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이어도는 경제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무궁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도 연구회에 따르면 지정학적 가치는 연간 6,885억 원 수준(군사·안보적 가치 3,085억 원, 문화·상징적 가치 1,646억 원, 지리·과학적 가치 2,16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어도 주변 지역에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상당한 규모의 광물자

23)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해양정보’ 목록에서 <과학기지 소개>, 검색일: 2020.8.2.

원이 매장된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이어도 주변 수역은 원유를 비롯한 핵심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주 파이프라인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 자원 및 영유권 분쟁이 상존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항로이기 때문에 안보적·전략적으로 중요한 항로로 평가된다.²⁴⁾ 이러한 이어도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표 3>과 같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표 3> 언론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이어도의 가치

보도일자	기사 제목
2012.04.03.	바다 속 보물섬 찾기 『부산일보』
2013.11.27.	이어도 전략적 가치는...수출입 물량 90% 통과 해상교통 요지 『세계일보』
2013.11.28.	이어도 대륙붕에 원유·천연가스 대량 매장 『문화일보』
2013.12.09.	[KADIZ 확대 공식 선포] 이어도 분쟁 뒤엔 ‘자원 전쟁’ 『동아일보』

출처: 연구자 재구성, 검색일: 2020.8.7.

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에는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연 면적 400여 평 규모에 전체 높이가 76m인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 있다. 76m 중 40m는 물에 잠겨 있고 36m는 물 위에 솟아 있으며 무게는 3,400톤인 사각형의 철제구조물로, 높이 20m 이상의 거센 파도와 초속 60m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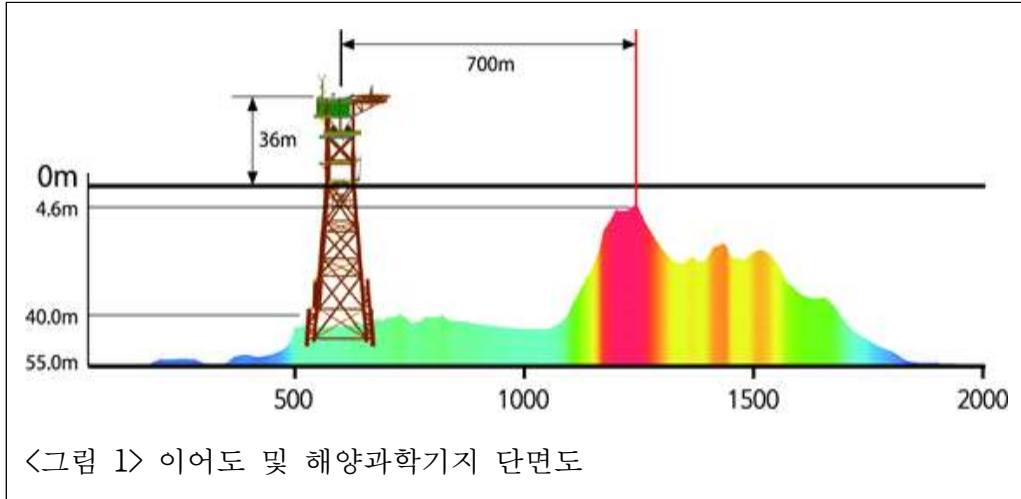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의 주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예측 및 연구에 도움을 주며 바닷물의 흐름, 파랑, 조석, 해양표면과 대기간의 상호작용, 대기물질의 이동 추적 등 기존의 지상 관측망이나 위성 자료로는 얻기 힘들었던 다양한 관측자료의 수집에 이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주변 해역의 대륙붕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⁶⁾

24) 이어도연구회 홈페이지(<http://www.ieodo.kr>), ‘이어도 바로알기’ 목록에서 <이어도의 가치>, 검색일: 202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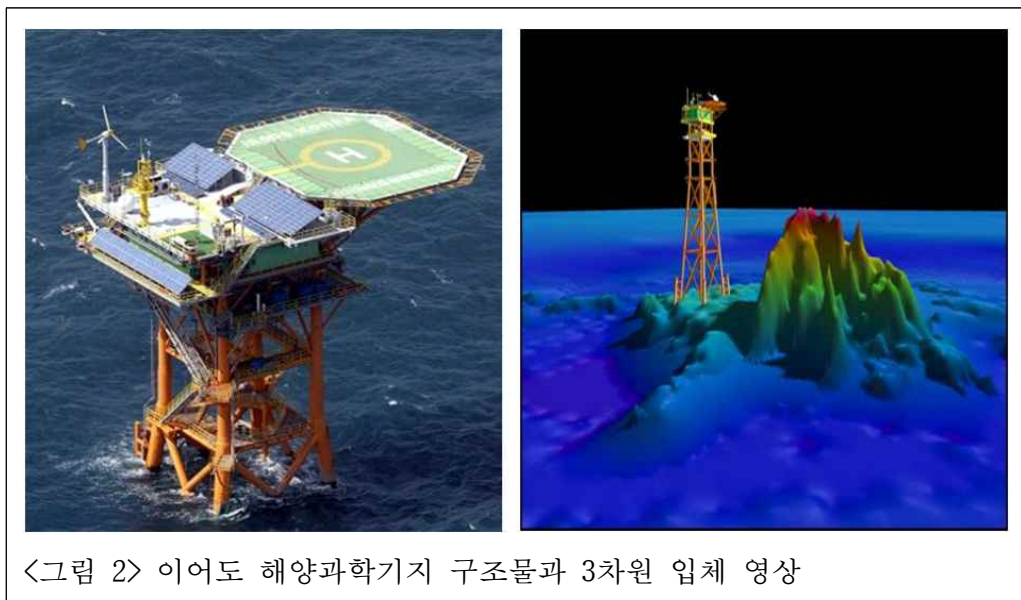
25) 이어도연구회 홈페이지(<http://www.ieodo.kr>), ‘이어도 바로알기’ 목록에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검색일: 2020.8.4.

26) 이어도연구회 홈페이지(<http://www.ieodo.kr>), ‘이어도 바로알기’ 목록에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검색일: 2020.8.5.

이렇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이어도는 그만큼 중국과 일본에게도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언제든지 국제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그 마찰은 이미 바다와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go.kr>), 검색일: 202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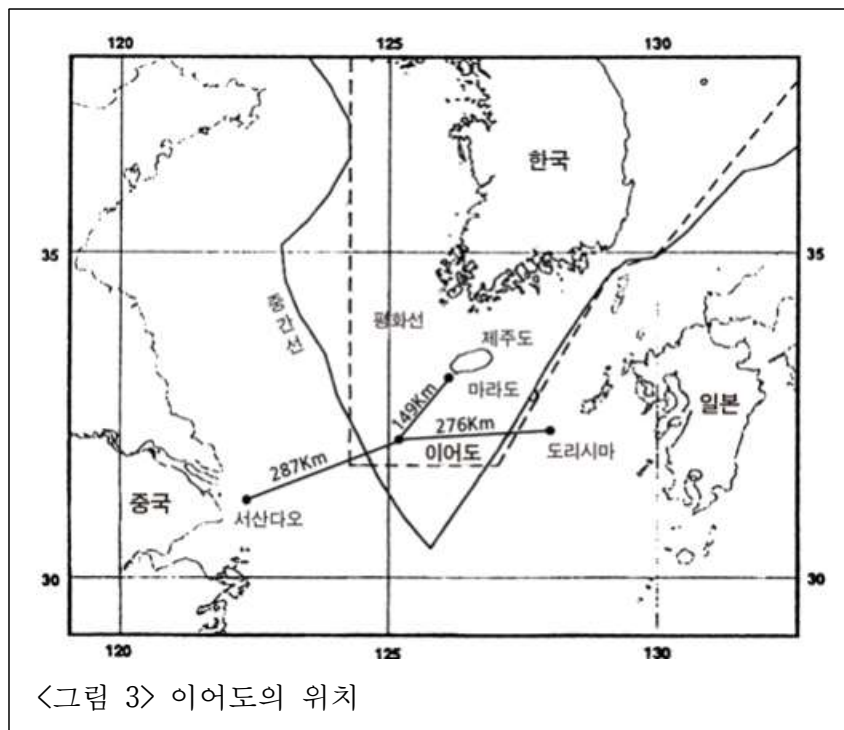


출처: 이어도연구회(<http://www.ieodo.kr>), 검색일: 2020.8.5.

⑥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제분쟁 가능성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독점권을 가지는 영해(領海)의 기준을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²⁷⁾ 이라 하며,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로 한정한다.²⁸⁾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서로의 거리가 400해리가 안되어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이 존재하며, 그 속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는 아직 양국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도는 <그림 3>과 같이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149km, 중국의 서산다오(山島, Sheshandao)로부터 동쪽으로 287km 그리고 일본의 도리시마(鳥島, Torishima)로부터 서쪽으로 276km의 거리에 있어 한·중·일 3국 중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영해 중간에 선을 그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하는 중간선 원칙에 따라서 이어도 해역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위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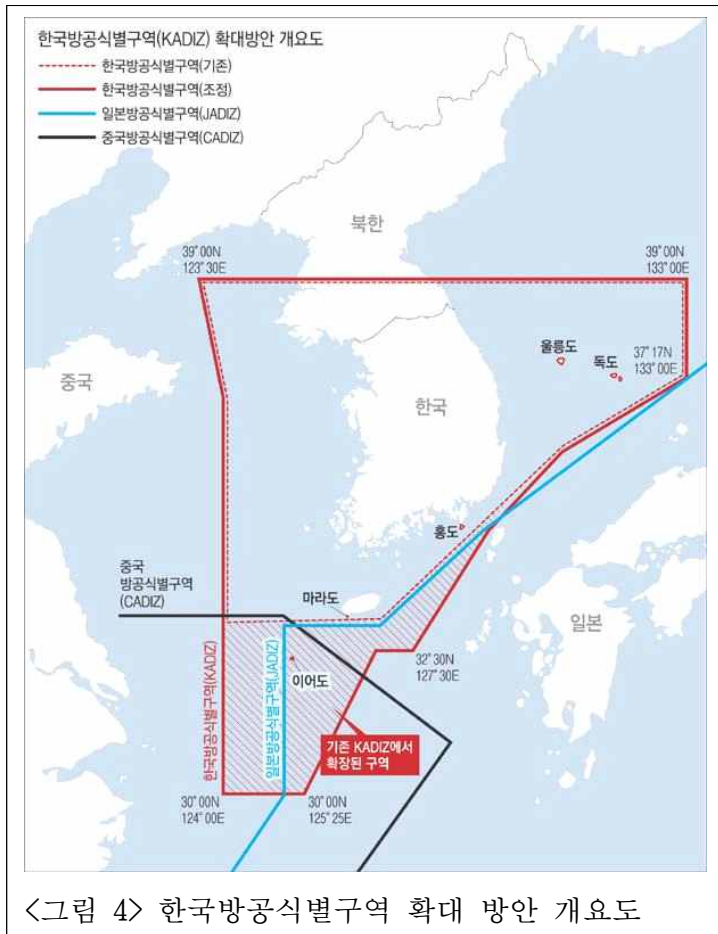
출처: 이어도연구회(<http://www.ieodo.kr>), 검색일: 2020.8.5.

- 27)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의 경계로,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자원 등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한다.
- 28) 조약 제1328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7조(배타적경제수역의 폭),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0.8.5.
- 29)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해양정보’ 목록에서 <이어도 소개-국제법적인 고찰>, 검색일: 2020.8.7.

중국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후부터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며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는 것과 해양과학기지를 세운 것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전이라도 이어도가 한국에서 가장 가까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도는 바다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분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경계선을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라 하며 “영공(領空) 침입 방지 따위를 위하여 각국이 설정한 공역(空域)으로 여기에 드나드는 항공기는 반드시 관제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된다.³⁰⁾

1969년 일본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한데 이어,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도 <그림 4>와 같이 2013년 12월 8일 이어도가 빠져있던 기존 방공식별구역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영공이 모두 포함되어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³¹⁾



<그림 4>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 개요도

출처: 『경향신문(http://www.khan.co.kr)』 2013.12.8, 검색일: 2020.8.7.

3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8.4, 검색어: ‘방공식별구역’.
31) 홍진수(2013.12.8), “[방공식별구역 확대] 이어도 상공 ‘3개국 방공구역’ 겹쳐. 최악 땐 한·중·일 전투기 동시 출격”, 검색일: 2020.8.7,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로도 <표 4>의 언론 보도처럼 최근까지 이에 대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표 4> 언론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이어도의 분쟁 가능성

보도일자	기사 제목
2012.03.13.	中 ‘이어도 답판’ 제안... 정부 “결국 우리 수역“ 『SBS』
2013.12.08.	한중일 왜 이어도 놓고 신경전 벌이나 『아시아경제』
2014.09.22.	“중국 영해선 확장 야망... 이어도 분쟁화 대비해야” 『한겨레』
2017.12.18.	중국 군용기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침범 『뉴제주일보』
2019.11.29.	中군용기, 또 韓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이어도~울진 앞바다 비행 『이데일리』

출처: 연구자 재구성, 검색일: 2020.8.7.

⑦ 이어도 명칭을 통한 우위 확보

이어도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 어느 국가가 더 일찍 이어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 중이다.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위원회(SCUFN)에서 제정한 해저 지명에 대한 원칙은 “두개의 명칭이 동일한 지형에 적용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다 오래 사용된 명칭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원칙에 따라 만약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명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인정되어 수중 암초인 이어도의 명칭으로 채택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³²⁾

이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명명하며, 그 명칭의 근원을 중국의 신화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서 찾고자 시도해 왔다. 이를테면, “동해(동중국해) 밖 태황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의천소산이라 한다”에서 ‘의천소산’을 이어도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허구적인 역사적 사실을 근거 삼은 것으로 억지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³³⁾

우리나라에서도 수중 암초인 현재의 이어도를 제주민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2) 성효현(2009),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와 한국의 해저지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년 학술대회 자료집』, p.110.

33) 송성대(2013),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이어도 연구』 4, p.69.

“이어도라는 지명은 ‘여(礮)’의 늘임말로 시적 언어이자 어떤 기의를 갖는 기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고유명사로 등장한다. 여가 이어도가 되면서 고유명사가 된 것은 이어도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암초(岩礁)가 아니라 대양 중에 출몰하는 여(礮)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는 주로 한국의 남해안 지방에서 암초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어도란 말이 민요의 후렴구로도 나오지만 민요 가사 중에(고유)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도토피아의 전설은 그야말로 픽션이기 때문에 전설속의 이어도 역시 픽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화학(說話學)에서는 전설속의 지명은 팩트가 된다고 한다. 제주도민(한국인)의 이어도에 대한 인지는 구비문학으로 존재하는 바와 같이 문헌기록시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인들 역시 이어도에 대해 고대 사회에서 인지하고 있음을 쑨옌자오라는 이름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³⁴⁾

“원 간섭기에 말 진상을 위해서 탐라인은 중국 강남 지역과 직항로를 운행하였다. 이 항로 선상에 이어도 암초가 존재한다.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암초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였고, 당시에는 다수의 탐라인이 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 바다로 진출할 일이 거의 없어졌다. 탐라인이 이어도 해역을 항해할 일도 없어졌다. 그 결과 이어도 수중 암초는 전설로만 전해져 오게 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³⁵⁾

⑧ 이어도 조례 제정 및 이어도 문화의 날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한 주간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주도의회에서 2007년부터 여러 번 논의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 번번이 무산되었다.³⁶⁾ 이에, 2015년 7월 22일 제주여성리더십포럼에 의해 도민 5,374명이 서명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제출된

34) 송성대(2013), 앞의 논문, p.94.

35) 양정필(2018), 「원 간섭기 탐라인의 해상 활동과 이어도」, 『제주도연구』 49, p.26.

36) 오은지(2012.12.3), “이어도의 날 조례 5년만에 상임위 통과”, 검색일: 2020.8.25,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 김진규(2018.6.20), “외교분쟁 논란 ‘이어도 조례’ 3년만에 본회의로”, 검색일: 2020.8.26,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

‘이어도 조례안’³⁷⁾을 3년 후인 2018년 2월에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결국 자동 폐기됐다.³⁸⁾

2015년부터 매년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하여 『제주신문』이 주최하고 한국해양 아동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어도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어도 문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어도 축제, 이어도 평화마라톤 등을 진행하고 있다.³⁹⁾

⑨ 제주를 중심으로 바라본 이어도

전설 속의 이상향이며, 수중 암초의 모습을 가진 이어도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전설 속의 섬일 수도 있고 단순한 수중 암초일 수도 있으며, 여(礮)로 인식하다가 시간이 흘러 이어도가 되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지금의 이어도를 보면서 전설을 떠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 실재화되면서 전설이 현실로 끌어내려졌다. 바다와 하늘의 영토가 늘어나고 군사적 우위를 점하며 해저자원 개발 경쟁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좋은 일이나 이상향의 전설이 수중 암초로 몰락한 제주의 상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어도가 실재화된 만큼 제주의 상실도 실재한다. 더 이상 전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민들에게 낙원처럼 인식되던 섬이 수중 암초가 된 것뿐 아니라 국제분쟁의 빌미가 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3) 교육 방법

① 개요

이어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5>와 같다. 주제에 맞춰 학습 목표를 정한 후 학습 과정에 따라 진행한다. 학습 과정은 <표 6>과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지역의 관점을 대비하며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도입단계, 다음으로

37) 이 조례안은 매년 백중일(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8) 박미라(2015.7.24),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조례 수년째 무산 ‘왜’... 다시 주민 발의”, 검색일: 2020.8.16, 『경향신문(<http://news.khan.co.kr>)』; 좌동철(2018.6.26), “이어도의 날 조례 또 폐기...이번이 세 번째”, 검색일: 2020.8.16,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39) 임청하(2020.8.30), “승고한 제주인들의 삶 역사로 기억할 것”, 검색일: 2020.9.2, 『제주신문(<http://www.jejuexpress.co.kr>)』.

<표 7>과 같이 패널토론을 통해 주요 입장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전개단계, 그리고 <표 8>과 같이 상대방으로 입장을 바꿔 특정 상황을 가정한 역할토론을 진행하는 확장단계, 마지막으로 <표 9>와 같이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는 정리단계로 구성하였다.

<표 5>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개요

주제	지역의 전설을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 제주의 전설 이어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전설의 의미를 학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서 이어도 전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 - 지역에서 전설이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구현되는 모습을 학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가 실재화 되는 과정과 목적, 배경을 이해한다. - 전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생들이 고찰하도록 한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과정	도입	이어도에 대한 기본 사실들을 핵심 위주로 설명	1 / 3 차시
		[주의 환기] 동영상 자료 활용 [참여 유도] 간단한 질문을 통한 참여 유도 [기본 사실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설의 이어도와 수중 암초의 이어도를 대비해서 제시 ·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 군사적·경제적 가치, 분쟁 가능성 설명 · 이어도 국경 확립을 위한 당국과 시민의 노력 소개 	
	전개	이어도에 대한 패널토론 진행	2 / 3 차시
		[토론 소개] 패널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 설명 [패널 배치] 선정된 패널의 자리를 배치 [주제 제시] 강의실 전면에 주요 주제를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 [토론 진행] 패널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A그룹과 B그룹이 입장을 바꿔 역할토론을 진행	3-1 / 3 차시
	확장	[진행 안내] 입장을 변화와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설명 [토론 진행] 역할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정리	토론 정리 및 유사 사례 제시	3-2 / 3 차시
	[토론 정리] 토론 주제 중심으로 내용 정리, 교육생 의견 청취 [사례 제시] 유사 사례를 제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찰 권고	

② 1차시, 도입단계

<표 6>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도입

도입	이어도에 대한 기본 사실들을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	
	[주의 환기] (4분)	- 이어도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국립해양조사원 해양방송 온 바다'의 '이어도', https://www.youtube.com/watch?v=4AzA55J43D4)으로 시작한다.
	[참여 유도] (5분)	- 교육생들이 '이어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하도록 한다.
	[기본 사실 전달] (4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설의 이어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에 대한 제주민의 증언, 구술 영상, 이어도 사나 민요, 민속자료 등을 제시한다. - 수중 암초 이어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 탐사부터 해양과학기지 설립, 운영 및 이점 등을 설명한다. · 해양과학기지 사진, 암초 이미지, 이어도 수산 및 지하자원 뉴스 등을 제시한다. - 이어도를 둘러싼 국제 분쟁 가능성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방공식별구역의 개념과 중국, 일본과의 중첩 이미지를 제시한다. · 국제법상 영토 인정 기준인 중간선 원칙, 오래된 명칭의 채택 원칙과 우위 선점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 중국의 전설을 이용한 선점 주장 내용, 여(礮)에 대한 풀이(여 → 이어 → 이어섬 → 이어도)를 설명한다. · 이어도 해양주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어도연구회'의 '우리의 해양주권 최전선 이어도', https://www.youtube.com/watch?v=_mELsMtpcY)을 보여준다. - 이어도 국경 확립을 위한 당국과 시민의 노력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경계 강화, 학회 운영, 축제와 국제세미나 개최, 제주도 조례안 추진 등을 설명한다.

③ 2차시, 전개단계

<표 7>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전개

전개	전설의 이어도와 수중 암초 이어도에 대한 패널토론 진행	
	[토론 소개] (5분)	- 패널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 설명 ① 핵심 주제 내에서 토론 ② A그룹, B그룹 두 개의 입장으로 나누어 진행 · A그룹: 이어도는 수중 암초가 아니며 전설 속의 이상향이다. · B그룹: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며 전설 속의 섬이기도 하다. ③ 패널토론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패널 배치] (5분)	- 선정된 패널의 자리를 배치 ① A그룹과 B그룹에 각각 2~3명씩 구성 ② 강의실 전면의 좌측과 우측에 배치하되, 청중과 삼각 구도를 형성
	[주제 제시] (5분)	- 강의실 전면에 주요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 ① 전설의 섬이 수중 암초 이어도가 맞는가? ② 수중 암초가 된 지금은 전설의 몰락인가?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인가? ③ 전설의 몰락이 아닌 정당한 이용이라면 그것은 제주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④ 전설의 이용으로 국제분쟁 가능성이 생겼다. 이 상황이 제주민에게 영향을 주는가? 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제주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각각 무엇인가? ⑥ 이어도의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인가?
	[토론 진행] (25분)	- 패널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10분)	-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④ 3-1차시, 확장단계

<표 8>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확장

	A그룹과 B그룹이 입장을 바꿔 역할토론을 진행
--	---------------------------

확장	[진행 안내] (5분)	- 입장의 변화와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설명 ① 이어도에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의 공청회 상황 가정 · A그룹: 이어도 인공섬 조성에 찬성 여론을 모아야 하는 정부 당국자 · B그룹: 이어도의 명칭 사용과 인공섬 개발을 반대하는 전통 문화 및 자연보존 시민단체 관계자 ② 역할토론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토론 진행] (20분)	- 역할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10분)	-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⑤ 3-2차시, 정리단계

<표 9> 이어도 교육프로그램 - 정리

정리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유사한 사례를 제시	
	[토론 정리] (10분)	- 패널토론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 -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 ·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이어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자유롭게 표현
	[사례 제시] (5분)	-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기 권고 · 전라남도 장성군의 '실존 인물 홍길동'을 기념하는 '홍길동 테마파크'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home/honggildong) 소개 · 홈페이지 내용으로는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자 소설의 주인공으로, 신분 차별 때문에 출세를 포기하고 민중을 규합하여 활빈당을 결성한 후 사회 정의를 실천하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음. 그리고 '관군에 체포되었으나 무리를 이끌고 탈출한 후 오키나와로 진출하여 울도국을 세우고 강력한 해상세력이 되었다.' 고 전해진다 함.

2) 지역의 존경받는 인물 교육프로그램: 김만덕

(1) 교육 목표

지역별로 지역민이 존경하며 추모하는 의인들이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그들의 업적과 삶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각종 추모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 건축물을 짓기도 한다. 지역의 인물에 대해 업적을 높이고 훌륭한 삶을 칭송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양한 입장과 해석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 지역의 인물인 의인(義人) 김만덕(1739~1812)에 대해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애 전체를 살펴보고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함께 알아본다. 다음으로 김만덕의 기생 신분 면천과 그녀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교육 내용

① 어린 시절

김만덕은 영조 15년(1739)에 태어나 순조 12년(1812)에 생을 마감하였다.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2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 친적집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가난으로 기생집에 보내졌고 이후 18세에 기적(妓籍)에 올라 관기가 되었다.

조선사회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라 결정되었다. 김만덕은 퇴기의 수양딸로 자랐기에 관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당시의 관기란 관청에 소속된 국가의 재산이었다.

② 양인 신분 회복

관기로 생활하다가 원래 신분을 되찾을 목적으로 24세(1762)에 제주목사 신광익을 찾아가 여러 차례 탄원한 끝에 기적에서 이름을 없애고 양인 신분을 회복했다. 양인이 된 후 결혼하지 않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독신의 삶을 평생 살아간다.

조선 시대는 유학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공명첩⁴⁰⁾이 대량으로 발급되고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③ 객주를 통한 사업 확장

김만덕은 객주를 차리며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 상인들에게 거래 알선, 물품 보관, 위탁매매 등을 제공하며 자리를 잡았고, 제주도와 육지의 물품 중 가격 차이가 큰 물품들을 교역했다. 시기에 따라 미역, 전복, 굴, 양태(갓의 재료) 등 제주의 특산물을 육지에 팔았고 백미와 잡곡도 거래했으며 기녀와 양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⁴¹⁾

김만덕이 살았던 영조, 정조 시대는 이양법의 보급과 실학사상의 전파로 유통경제가 발전하고 포구를 통한 무역과 객주⁴²⁾가 번창하던 시기로 제주의 특산물과 육지의 곡물을 교역하는 일이 빈번했다.

④ 김만덕의 선행

제주는 척박한 토질과 농경지의 부족으로 자주 기근을 겪었다. 정조 19년(1795)에 제주에 계속된 흉년으로 대기근이 들자 김만덕은 육지에서 쌀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만덕의 재산과 당시 사용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재산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는 1792년부터 흉년과 태풍이 겹쳐 대기근을 겪고 있었다. 1794년 겨울 제주 인구가 62,698명인데 이 중에 17,963명이 1년 만에 죽고, 1795년 겨울에는 47,735명이 살아남았다.⁴³⁾ 정조가 구휼미를 제주에 보냈으나 거센 바람에 배가 침몰하기도 했다.⁴⁴⁾

⑤ 육지 여행과 그 후

정조 20년(1796), 제주민을 구휼한 공을 인정받아 소원대로 한양에 상경하여 내의원 의녀반수(內醫院 醫女班首)의 벼슬을 받고 왕을 알현한 후 금강산을 구경

40) ‘공명첩’은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로 된 관직 임명장으로, 국가의 재정이 궁핍할 때 국고를 채우는 수단으로 발급되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8.11, 검색어: ‘공명첩’.

41) 김만덕기념사업회(2007), 『恩光衍世(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pp.15-41.

42) 객주는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의 중개 등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4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15일 임술 1번째 기사 국역, 검색일: 2020.8.14.

4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3일 을유 2번째 기사 국역, 검색일: 202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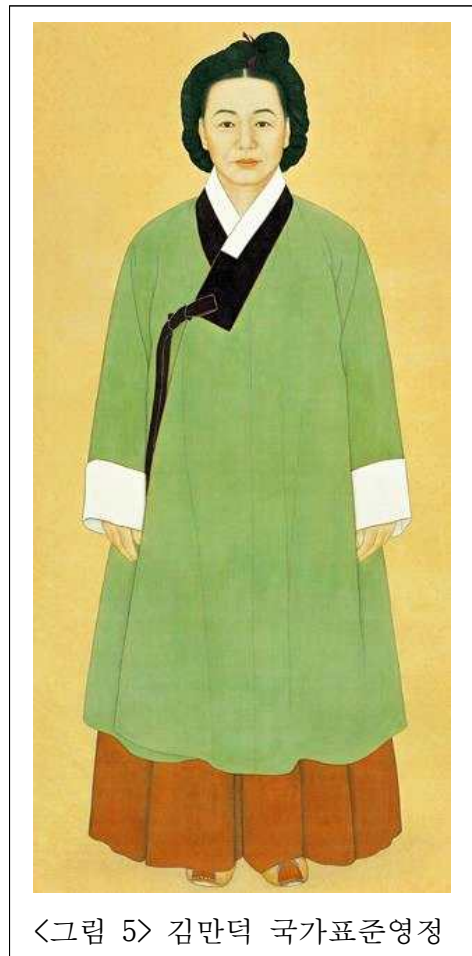
하였다. 이후 제주로 돌아와 남은 생애 동안 객주를 운영하며 나눔의 삶을 이어 갔고 제주민에게 ‘만덕할망’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당시는 인조 7년(1692)에 시작된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이 계속 유지되던 시기임에도 김만덕은 여성으로서 최고의 벼슬인 의녀반수(醫女班首)에 오르고 평생 소원이던 궁궐 구경과 금강산 유람을 이루었다. 당대의 명망 높은 선비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김만덕을 칭송하기도 하였다.⁴⁵⁾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당시 김만덕의 업적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⑥ 김만덕 추모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1980년부터 ‘김만덕상’을 제정하고 ‘만덕제’를 지내고 있다. ‘김만덕상’은 봉사부문과 경제인 부문 두 개로 나누어 시상하며 2019년까지의 수상자는 49명이다. 봉사부문은 순수한 이웃 사랑 실천과 헌신적인 노력 봉사를, 경제인 부문은 이윤의 나눔과 사회 환원에 중점을 두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만덕제는 10월 22일이 포함된 10월 넷째 주에 개최되며 유교식 제사의례에 축제 형식을 가미하여 진행되고 있다.⁴⁶⁾

2010년에는 <그림 5>와 같은 김만덕 영정을 국가표준영정 제82호로 지정받았다. 김만덕 영정은 50대 후반의 후덕하고 인자한 표정을 한 전신 입상 자세로 가로 110cm, 세로 190cm 크기의 건본채색 작품이다. 윤여환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가 제주 여성들의 외모 특징과 당시의 복식, 김만덕에 대한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⁴⁷⁾



<그림 5>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https://jeju.go.kr>),
검색일: 2020.12.5.

45)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pp.186-188.

46) 문순덕(2020), 「제사 의례로 추모되는 제주 여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 김만덕, 고씨, 박씨, 홍운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3, pp.65-66.



<그림 6> 김만덕 기념관

출처: 연구자 촬영, 2020.9.22.



<그림 7> 김만덕 객주터

출처: 연구자 촬영, 2020.9.22.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1월, 제주시 건입동에 <그림 6>과 같은 연면적 2932.38㎡에 3층 규모의 ‘김만덕기념관’을 조성

47)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 목록에서 자료실, 검색일: 2020.12.5.

했고, 기념관 주변에 <그림 7>과 같이 ‘객주터’도 재현하였다.

⑦ 기생의 면천 가능성

김만덕이 기생이었다가 면천되어 양인으로 환원되었다는 기록이 채제공의 『변암집』 권55 「만덕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20여세에 그 사정을 관에 읍소하였고 관에서는 불쌍히 여겨 기안에서 빼주자 다시 양인이 되었다.”고 적혀있다.⁴⁸⁾ 이후 이 사건은 현재까지 당연한 사실로 여겨지며 그녀의 주체적이고 당찬 품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녀와 관련된 각종 문학작품과 그녀를 소개하는 상황 등에서 대부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소재이다.

그렇다면 과연 20대 초반의 관기 김만덕이 관가에 여러 차례 호소하여 면천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러한 면천 방식이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녀를 비하하거나 그녀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김만덕의 삶과 업적을 정확히 알리고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김만덕에 대한 각종 소설이 등장하고 드라마 ‘거상 김만덕’으로 각색되면서 그녀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혼재되어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사료가 부족하여 명확하진 않으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과 허구적 상상력에 의해 생산된 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김만덕이 20대 초반에 관기의 적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나, 김만덕이 50대 후반이던 시기에도 조선왕조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녀를 계속 기녀로 표현한다. 정조 20년(1796) 6월 6일 『일성록』⁴⁹⁾에는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가 왕에게 보고한 장계에서 만덕을 기녀로 칭하고 있고, 이어서 아래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정조가 만덕을 기녀로 칭하고 있으며 면천을 해줄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노기(老妓) 만덕(萬德)은 사리상 진실로 구할 것이 없는데도 재물을 가볍게 여길 줄 아니, 비천한 무리가 더욱 능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8) 蔡濟恭, 『萬德傳』, 二十餘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除妓案復歸之良.

49) ‘일성록’은 조선 영조 36년(1760) 1월부터 융희 4년(1910) 8월에 걸쳐 조정과 내외의 신하에 관해 기록한 일기로, 임금의 일기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8.14, 검색어: ‘일성록’.

노기 만덕은 그가 무엇을 구하기에 이렇게 100포(包)에 가까운 백대미(白大米)를 마련하여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면천(免賤)을 해 주든지 별도로 보상해 주든지 간에 경은 그가 원하는 대로 시행해 준 뒤에 거행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라.⁵⁰⁾

같은 해 7월 28일 제주목사의 장계에서 김만덕 스스로도 면천할 마음이 없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만덕의 소고(所告)에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면천(免賤)할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⁵¹⁾

그 후로도 김만덕은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 계속해서 기생으로 언급되고 있다.

아래는 정조 20년(1796) 11월 25일 『정조실록』의 해당 내용이다.

제주의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⁵²⁾

같은 날짜의 『승정원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서도 면천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소원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데 있다.⁵³⁾

50)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http://db.itkc.or.kr>), 일성록, 정조 20년(1796) 6월 6일(경진) 5번째 기사 국역, 검색일: 2020.8.15.

51)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http://db.itkc.or.kr>), 일성록, 정조 20년(1796) 7월 28일(신미) 6번째 기사 국역, 검색일: 2020.8.16.

5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25일 병인 1번째 기사 국역, 검색일: 2020.8.12.

마찬가지로 『일성록』에서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

진흠청이 **제주의 기녀 만덕**에게 이달의 양식과 경비로 쓸 쌀과 돈을 제급(題給)해 주는 것으로 아뢰어, 전교하기를,

“많은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해 살렸는데 그 일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그에게 소원을 물으니 상을 받는 것도, **면천(免賤)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올라와 보고 그 길에 금강산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였는데 마침 한겨울이라 출발할 수 없었다. 그가 비록 **천인(賤人)**이기는 하지만 의로운 기상은 옛날의 정의로운 협객에 부끄럽지 않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주고 곧바로 내의원의 차비 대령인 행수 의녀로 충원하고 수의(首醫)에게 소속시켜 각별히 돌봐 주도록 하라. 그리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 하였다.⁵⁴⁾

이렇듯 김만덕의 신분에 대해 체제공의 「만덕전」과 관에서 기록한 사료들이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만덕전」이 쓰여진 배경과 근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체제공의 「만덕전」은 왕명에 따라 쓰여진 작품으로, 만덕의 치적을 높이려는 글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므로 「만덕전」에 만덕을 향한 각종 예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덕전」을 대해야 한다. 또한 체제공이 김만덕을 직접 만난 후에 「만덕전」을 저술했을 가능성과 양인으로 환원되었다는 내용이 명확한 근거 없이 김만덕과의 대화를 토대로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⁵⁵⁾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체제공은 정조에게 김만덕에 대해 보고하며 그녀를 기녀로 지칭했었다.

체제공이 아뢰기를, “**탐라(耽羅)의 기녀**가 재물을 내어 백성을 구휼하였는데

53)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홈페이지(<http://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1,796책, 정조 20년 11월 25일 병인 15/24 기사 국역, 검색일: 2020.8.16.

54)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http://db.itkc.or.kr>), 일성록, 정조 20년(1796) 11월 25일(병인) 3번째 기사 국역, 검색일: 2020.8.17.

55) 김나영(2019), 「18·19세기 제주사회와 김만덕 생애 재고찰」, 『역사민속학』 56, pp.168-169; 양정필(2017), 「18세기 후반 김만덕의 경제활동 재고찰」, 『사학연구』 125, pp.250-251.

상을 받는 것도, 면천(免賤)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왕성(王城)을 한번 구경한 다음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기를 원한 데 대해, 소원대로 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기녀가 막 올라왔는데 마침 한겨울이라 여관에서 방황하다 신에게 와서 울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그가 **친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의리가 가상하고 정상이 불쌍하니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6)

다음으로 당시에 면천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지 살펴보자. 조선 후기 관노비가 면천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사례가 극히 적으며 면천된 경우에도 다른 사람 여러 명을 대신 노비로 세워야 했다. 20세 초반의 김만덕이 그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관청에 여러차례 호소했을 뿐인데 면천되었다는 것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⁵⁷⁾

⑧ 제주의 인물에 대한 시선의 변화

김만덕은 소설과 드라마를 거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제주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럴수록 그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녀가 면천되었다는 사실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더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인물을 칭송하다 못해 신격화하는 것은 그 인물과의 거리감을 키워 오히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만덕할망’이라 부르며 가깝게 느껴지는 친근한 인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음을 함께 알리며 인간적인 면을 드러낼 필요도 있다. 혹시라도 그녀가 면천을 받지 못하고 계속 기녀였다고 한들, 그녀의 의로운 활동과 업적이 의미가 깎이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대기근 시기에 자신의 전 재산으로 제주민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계속 기녀의 신분을 유지했었다면 면천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신분제 사회 속에 살면서도 신분의 높고 낮음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우뚝 선 그녀의

56)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http://db.itkc.or.kr>), 일성록, 정조 20년(1796) 11월 24일(을축) 1번째 기사 국역, 검색일: 2020.12.12.

57) 양정필(2017), 앞의 논문, pp.254-256.

자신감과 당당함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신분에 개의치 않는 인식과 태도가 사업 운영 방식에도 반영되어 그녀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 회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사고를 확장할 수 없게 된다.

(3) 교육 방법

① 개요

김만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10>과 같다. 주제에 맞춰 학습 목표를 정한 후 학습 과정에 따라 진행한다. 학습 과정은 <표 11>과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새로운 관점을 대비하여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도입단계, 다음으로 <표 12>와 같이 패널토론을 통해 주요 입장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전개단계, 그리고 <표 13>과 같이 상대방으로 입장을 바꿔 특정 상황을 가정한 역할토론을 진행하는 확장단계, 마지막으로 <표 14>와 같이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는 정리단계로 구성하였다.

<표 10>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개요

주제		지역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 제주의 인물 김만덕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에 대한 일반론을 학습한다. · 제주의 의인 김만덕의 삶과 업적에 대해 학습한다. - 인물의 삶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 다양한 가능성과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생들이 고찰하도록 한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과정	도입	김만덕의 삶과 업적에 대해 알려진 일반론을 핵심 위주로 설명	1 / 3 차시
		[주의 환기] 동영상 자료 활용 [참여 유도] 간단한 질문을 통한 참여 유도 [기본 사실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시절과 양인 신분 회복, 사업 시작과 제주민 구휼을 학습 · 한양 상경 후 금강산 구경과 노후까지를 학습 · 김만덕의 추모 현황과 면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학습 	

과정	전개	김만덕의 면천에 대한 패널토론 진행	2 / 3 차시
		[토론 소개] 패널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 설명 [패널 배치] 선정된 패널의 자리를 배치 [주제 제시] 강의실 전면에 주요 주제를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 [토론 진행] 패널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확장	A그룹과 B그룹이 입장을 바꿔 역할토론을 진행	3-1 / 3 차시
		[진행 안내] 입장을 변화와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설명 [토론 진행] 역할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토론 정리 및 유사 사례 제시	3-2 / 3 차시
	정리	[토론 정리] 토론 주제 중심으로 내용 정리, 교육생 의견 청취 [사례 제시] 유사 사례를 제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찰 권고	

② 1차시, 도입단계

<표 11>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도입

도입	김만덕의 삶과 업적에 대해 알려진 일반론을 핵심 위주로 설명	
	[주의 환기] (8분)	- 김만덕을 소개하는 영상('김만덕기념관'의 홍보 동영상, http://www.mandukmuseum.or.kr/index.php/contents/intro/movie)으로 시작한다.
	[참여 유도] (5분)	- 교육생들이 '김만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하도록 한다.
	[기본 사실 전달] (3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과 양인 신분 회복까지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기생집에 의탁, 관기가 된 후 20세 초반 면천되기까지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설명한다. - 사업의 시작과 제주민 구휼까지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주를 바탕으로 한 부의 축적과 대기근 당시 구휼에 대해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설명한다. - 한양 상경, 금강산 구경 후 노후까지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에 상경하여 벼슬을 받고, 금강산을 구경한 후 노후까지 나누는 삶을 산 것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김만덕 추모에 대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기념관 건립, 객주터 구현, 국가표준영정 지정, 김만덕상 제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 김만덕의 면천 여부에 대한 자료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왕조 공식적인 기록들의 ‘기녀’ 표시 등 면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설과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	--

③ 2차시, 전개단계

<표 12>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전개

전개	김만덕의 면천에 대한 패널토론 진행	
	[토론 소개]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 설명 ① 핵심 주제 내에서 토론 ② A그룹, B그룹 두 개의 입장으로 나누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그룹: 김만덕은 면천되지 않고 계속 기녀였다. · B그룹: 김만덕은 면천되어 양인으로 살았다. ③ 패널토론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패널 배치]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패널의 자리를 배치 ① A그룹과 B그룹에 각각 2~3명으로 구성 ② 강의실 전면의 좌측과 우측에 배치하되, 청중과 삼각 구도를 형성
	[주제 제시]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전면에 주요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 ① 20대 초반에 면천되어 양인 신분을 회복했을까? ② 계속 천민인 기녀였다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분을 회복했다고 알려져 있을까? ③ ‘신분 회복’이 잘못된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천민인 것과 기녀라는 것 중 어떤 것 때문일까? ④ 그녀의 면천 여부가 그녀의 업적을 훼손하는가? ⑤ 계속 기녀였다면 왕명에 따라 신분을 면천할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혼자 힘으로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 자수성가한 인물이기에,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⑥ 신분에 개의치 않는 당당한 태도를 가졌었다면 객주운을 운영하는 방식과 경제적 성공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까?
	[토론 진행]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10분)	-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	----------------------------

④ 3-1차시, 확장단계

<표 13>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확장

확장	A그룹과 B그룹이 입장을 바꿔 역할토론을 진행	
	[진행 안내]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을 변화와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설명 ① 가치 ‘조선의 기녀들’ 책 집필을 기획 중인 출판사 사무실에 김만덕의 후손이 방문하여 책에서 김만덕 관련 내용을 정정해 달라 요청 중 [심노승의 부정적 입장(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기생의 모습)이 주요 내용임] · A그룹: 양인 신분을 일찍이 회복했고(또는 능력으로 신분을 초월했고) 사업의 방식도 합리적이었으니 업적을 일부러 깎아내리지 말라며 관련 내용 정정을 요청하는 김만덕의 후손 · B그룹: 계속 기녀였을 것이고, 부의 축적에 부정적인 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책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출판사 관계자 ② 역할토론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토론 진행] (20분)	- 역할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10분)	-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⑤ 3-2차시, 정리단계

<표 14> 김만덕 교육프로그램 - 정리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유사한 사례를 제시	
[토론 정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토론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 -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 ·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김만덕의 삶, 다양한 가능성과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표현

정리	[사례 제시]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김만덕의 신분, 삶의 궤적과 비교하며 생각해보기 권고 ·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소개. 부산 동래현에 속한 관노비로서 34세에 왕의 특명으로 관노의 신분을 벗어남. 천문관측기계인 ‘간의’, 물시계인 ‘자격루’, 해시계인 ‘앙부일구’, 세계 최초의 우량기인 ‘측우기’를 발명함. · 장영실의 신분과 업적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본 후 그의 면천 시기와 과정, 이유 등을 김만덕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와 그의 업적을 평가할 때 관노 신분에 영향을 받는지 등을 생각해보기
----	-----------------	---

3) 지역의 안타까운 인물 교육프로그램: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1) 교육 목표

지역사 속에서 지역은 국가와 대척점에 서기도 한다. 저항하는 외세가 다른 나라가 아닌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지역과 국가, 중앙과 지방이 모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삼별초 항몽이라는 사건과 그 커다란 그림자에 가려졌던 제주민의 수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사의식과 해석을 비교, 학습하며 삼별초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토록 한다. 삼별초 항몽의 진행 과정과 일반론을 살펴보고 당시 제주민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와 앞으로 제주는 삼별초 항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교육 내용

① 삼별초 항몽의 시작

삼별초는 야별초(좌·우 2부대)와 신의군(1부대)의 총칭으로 무신정권의 주요한 무력 기반이었다. 고려 원종 11년(1270년), 강화도에서 몽골군에 저항하던 무신정권이 무너진 후 몽골의 요구에 따라 원종은 개성으로 환도하려 했다. 환도는 몽골에의 복속과 삼별초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별초는 환도에 반대한다.⁵⁸⁾

58) 이정신(2000), 「[사실, 이렇게 본다1] 삼별초의 항쟁」, 『내일을 여는 역사』 2, p.76.

같은 해 6월 1일,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하에 원종의 동생 승화후(承化候) 온(溫)을 국왕으로 추대하고 반몽골을 외치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선포한다. 이때부터가 삼별초 항몽 역사의 시작이다.⁵⁹⁾ 6월 3일, 1천여 척의 배에 나눠타고 고려군의 본거지와 가까운 강화도를 떠나 전라남도 진도에 도착한 후 새로운 근거지를 건설한다.

② 삼별초의 제주도 점령과 유격전

1271년 5월, 여·몽 연합군은 여러 번의 공격 끝에 진도를 함락했고, 승화후 온과 삼별초 수령 배중손은 사망한다. 남은 삼별초는 김통정을 수령으로 받들고 제주도를 점령한다. 김통정은 애월읍 고성리 일대에 견고한 토성을 구축하고 3백리에 걸친 장성을 쌓아 여·몽 연합군과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삼별초는 제주도를 본진으로 한 방어태세가 갖춰진 후 전남·경남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유격전을 펼치며 고려를 괴롭힌다.

③ 삼별초의 패배

1273년 4월, 병선 160척에 1만 2천 명 병력의 여·몽연합군이 탐라를 공격했다. 바굼지오름(애월)에서 크게 패한 후 김통정은 부하 70기(騎)를 거느리고 항과두리성을 탈출한다. 붉은오름에서 최후의 일전을 치른 후 김통정은 홀로 살아남아 한라산에 들어가 자결했다. 여·몽연합군은 항복한 삼별초의 사졸 1,300여명을 포로로 잡아 귀환하였다.⁶⁰⁾

④ 몽골의 직할지, 제주도

삼별초를 토벌한 몽골은 제주에 다루가치⁶¹⁾를 파견하며 직할지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공민왕 23년(1374년)까지 제주는 몽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목마장이자 일본 침략의 병참기지로 이용되며 제주민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59) 윤용혁(2011),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도서문화』 37, p.85.

60) 윤용혁(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p.259; 한동구 저, 고영자 역(2017), 『제주도 삼다의 통곡사』, 제주시우당도서관, pp.146-152.

61) ‘다루가치’는 중국 원나라 때, 고려의 점령 지역에 파견하여 그 지역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거나 내정에 관여하던 벼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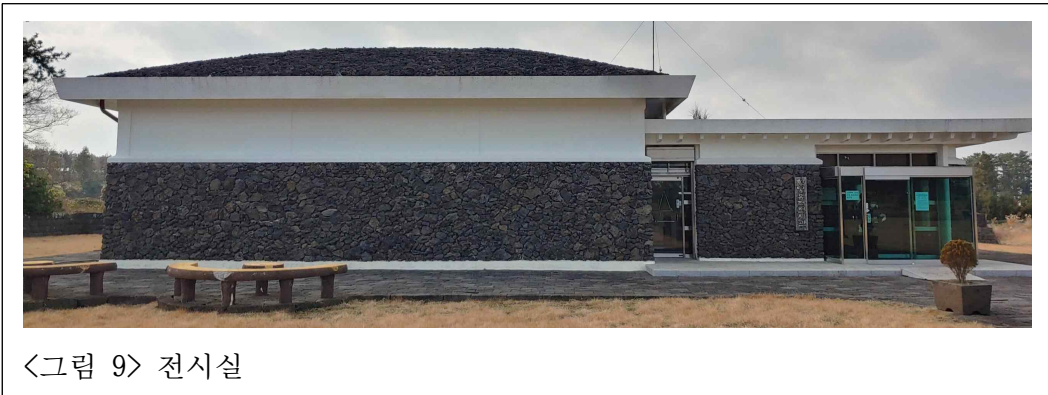
⑤ 향파두리 항몽유적

향파두리는 대몽항쟁의 마지막 격전지로,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로 온 김통정은 위치와 지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서남쪽 언덕배기에 향파두리를 쌓았다. 향파두리는 하천과 계곡에 면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고, 지대가 높아 해안선 조망이 가능했다. 둘레가 6km인 토성을 외성으로 하고 내부에 둘레 750미터의 석성도 만들었다.

1977년, 박정희 유신정권은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국정신을 강조하며 관련 유적들을 찾고 정비하였는데 향파두리 항몽유적도 그 산물 가운데 하나다. 공사비 7억 4,500만원을 들여 토성 6km중 1.4km를 <그림 8>처럼 복원하고 <그림 9> 전시실, <그림 10> 순의비, <그림 11> 순의문을 비롯해 관리사·휴게소 등을 설치하였다. 이후 연차사업으로 계속 복원·정비하고 있으며, 1997년 4월 18일 이곳을 사적 제396호로 지정했다.



출처: 연구자 촬영, 2020.12.2.



출처: 연구자 촬영, 2020.12.2.



<그림 10> 순의비

출처: 연구자 촬영, 2020.12.2.



<그림 11> 순의문

출처: 연구자 촬영, 2020.12.2.

⑥ 삼별초 항몽에 대한 다양한 시선

삼별초의 항몽은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 삼별초의 국왕 옹립과 봉기는 반역이었으며, 삼별초의 항몽도 전쟁의 피해를 키우는 불필요한 행위였다. 둘째로, 민족적 외세 저항사의 입장에서 삼별초는 몽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조국을 수호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입장이 오랫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삼별초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셋째로, 부패하고 무능했던 무신정권에 대한 비판을 삼별초까지 연장하여 삼별초를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으로 보고 항몽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한다. 넷째로, 당시 민중들의 큰 호응과 참여가 있었던 삼별초의 봉기에 대해 ‘민족적 외세 저항’보다는 ‘민의 외세 저항’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 관점은 반외세의 항몽만이 아니라, 고려 지배층에 반대하는 반정부의 성격도 강조한다.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의 국왕을 앞잡이로 삼아 고려를 예속시키려던 몽고의 정책과, 나라의 예속화를 무릅쓰고 종속적 위치를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려던 국왕 및 그 측근의 행위에 반발하여 항거한 병사들이 농민의 동조와 지지를 얻어 일으킨 것이었다.”⁶²⁾

⑦ 해상 요충지로서의 제주

제주가 대몽항쟁의 마지막 거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제주는 남송과 일

62) 이정신(2000), 앞의 논문, p.84.

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해상 요충지로, 삼별초와 몽골은 삼별초가 제주에 주둔하기 이전부터 제주에 관심을 가졌다. 삼별초가 제주에 온 것은 진도에서의 패배로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며 몽골도 삼별초를 물리칠 목적만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원종 1년(1260년), 고려 조정의 분위기가 몽골 화친론으로 바뀌면서 무인 권력자들 사이에서 해도재천(海島再遷, 강화도에서 제주로의 천도)을 검토했었고, 원종 9년(1268년), 몽골의 개경환도 요구가 거세지면서 다시 논의하기도 했었다.⁶³⁾ 이렇듯, 삼별초는 제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제주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몽골도 삼별초가 제주를 점령하기 전부터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기지로서 제주에 관심을 가졌다. 《元史》⁶⁴⁾에 따르면 삼별초가 붕괴하기 3년 전인 1267년 제주 성주(星主)⁶⁵⁾ 양호(梁浩)가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부름으로 원으로 가서 황제를 만났으며, 1269년 몽골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제주를 살살이 살펴보기도 했다.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고려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 고려 정부는 진도에 주둔한 삼별초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하여 1270년 9월, 영암부사 김수에게 군사 2백을 내주며 제주로 파견했고 고여림 장군에게도 700여 군사로 삼별초의 공격에 대비해 제주를 지키게 했다. 김수 부사는 해안에 독을 쌓는 등 제주민을 동원해 방어시설을 구축했으며, 이 독은 나중에 삼별초에 의해 더 증축되어 환해장성이 된다.⁶⁶⁾ 진도 삼별초도 고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알았기에 그해 11월 진도 삼별초의 이문경 부대가 제주에 들어왔고 제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명월과 동제원에서 고려 수비군을 크게 이기고 제주를 차지한다.

⑧ 삼별초 항몽에 대한 제주민의 입장과 수난

제주는 해상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삼별초의 제주 점령을 대비하던 고려 정부에게도, 제주를 차지하려던 진도 삼별

63) 윤용혁(2000), 앞의 책, pp.143-150.

64) 원나라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로 이십사사 중의 하나.

65) ‘성주(星主)’는 신라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 탐라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탐라는 고려에 편입되고 지방관 파견도 받았으나, 여전히 성주와 왕자를 중심으로 족장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8.12, 검색어: ‘성주’.

66) 윤용혁(2000), 앞의 책, p.233.

초에게도 제주민은 중요한 변수였다. 고려 숙종 10년(1105), 탐라국이 고려의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인 탐라군이 되었다가 의종 7년(1153)에 제주현으로 바뀌며 지방관이 처음 파견되었다. 탐라에 파견되는 관리들은 대부분 탐관오리로서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수탈과 횡포를 일삼았고 무신 정권기에는 더 심해져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⁶⁷⁾ 진도에 주둔 중인 삼별초가 제주를 점령할까 걱정한 고려 정부는 제주에 파견된 지방관들의 횡포와 착취로 힘들어하던 제주민들을 긴급한 방어시설 구축에 강제로 동원했다. 이에 제주민은 고려 수비군을 공격하기 위해 제주에 들어온 삼별초와 뜻을 같이하며 고려 정부에 등을 돌렸다. 고려 정부에 저항하는 삼별초를 자신들과 같은 입장으로 보았을 것이고,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왔을 때 일종의 해방군처럼 여겼을 것이다.⁶⁸⁾ 그러나 진도가 점령당하며 퇴각한 삼별초 본진이 제주에 주둔한 이후 먹을 것이 귀해지고 방어시설 구축에 계속 동원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⁶⁹⁾ 당시 토성 쌓기에 동원된 제주민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는 이에 대해 전승되는 이야기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김통정이가 제주도 와서 항거한 것이 딱 2년 반이여. 내가 계산해보니까. 2년 반인데, 2년 반 사이에 거의 다 토성을 쌓아졌을거나 하는 게 문제로되, 김통정이가 탁 쌓다고. 그 전설은 뭐고 하니 제주도민을 전부 모여갔고 이제 동원시켜서 토성을 쌓아 노니깐 백성은 먹을 것도 없고 그디 강 그 일만 자꾸 시켜 노니 그 당시에는 그기 일하다가 대변을 보고 싶으면 대변, 대변을 보아서. 그 대변을 돌아왔아서 봐릴(불) 겨를 없었다고 해. 어떤 놈이 지켜 섰다가 확 좃어 먹어 버린단 말이여. 얼마나 험악한 살림을 살아왔기에 그러한 전설이 남았느냐 허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한 얘기라고 그래요. 길 어염에 개짱(?). “너는 개짱, 너는 자유롭게 길가에 가만히 앉아서 있지만은 너희 개도 언젠가는 무언가 이제 과세. 세금을 내라고 뉘달할 때가 있을거다.” 개짱냥 보고 그런 얘길 했다는 거여. 그거 두 가지. 똥을 싸가지고 자기가 돌아앉아서 봐리기 전에 똥 놈이 좃어 먹어 붙었다. 길가에 핀 개짱냥 보고 너도 언젠가는 세금 부담을 받아야 될거다하는 그런 얘기. 그것이 그 토성을 쌓을 때 나왔다는데 예. 김통정이가 제주도

67)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2008),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p.35.

68) 이정신(2000), 앞의 논문, p.80; 윤용혁(2011), 앞의 논문, p.93.

69)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2008), 앞의 책, pp.36-37; 홍순만(2014), 『사연따라 칠백리 - 제주도 역사의 현장을 찾아』, 제주문화원, pp.157-161; 한동구 저, 고영자 역(2017), 앞의 책, pp.146-148; 이영권(2005),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p.81.

와서 2년 반쯤 밖에 견디질 못했거든.⁷⁰⁾

<그림 12>는 ‘항파두성 축조 기록화’로 당시의 축조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참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2> 항파두성 축조 기록화

출처: 항파두리 항몽유적(<http://www.jeju.go.kr/hangpadori>), 검색일: 2020.9.30.

제주민 입장에서는 몽골에 대한 원한을 크게 가질 이유가 없었기에, 몽골군에 대항하는 삼별초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웠고⁷¹⁾ 그만큼 삼별초에 대한 반감은 커졌을 것이며, 삼별초도 제주민의 고초를 먼저 헤아리는 지배층은 아니었을 것이다. 1273년 4월, 제주에 들어온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섬멸하고 철수할 당시 “원래 탐라에 살던 자들은 옛날처럼 안심하고 살게 하였다.”라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관군 입장에서도 삼별초와 제주민은 뚜렷한 구별이 가능했으며, 제주민이 삼별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삼별초의 활동은 진도에서의 삼별초와 제주에서의 삼별초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 제주에서의 삼별초는 40년 대몽항쟁의 마지막 활동으로 어떤 의미로도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삼별초 항거의 최종 종착지인 제주와 제주민에 대한

70) 백록어문학회(2001), 「제주시 외도동 현지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17, p.311.

71) 윤용혁(2000), 앞의 책, p.272.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지고 있다. 당시의 제주민은 고려 국가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었고 몽골과 싸워 나라를 지킨다는 의식도 강하지 않았다. 그런 제주민에게는 고려 수비군, 삼별초, 여·몽연합군 모두 외세의 침략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제주에서 여·몽연합군에 포로로 잡힌 삼별초 군인이 1천 3백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군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제주에 왔음을 감안한다면 최소 수천 명에서 만 명 단위까지의 인원이 제주에 약 2년 5개월 동안 머물렀다. 『고려사』에 당시의 탐라 인구가 1만 223명⁷²⁾으로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 삼별초군과 그 가족들의 식량과 의복, 전쟁 물자까지 감당해야 했던 제주민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삼별초의 항몽을 외세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높이 평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민의 고통과 피해도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과 지역이 모여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된다. 지역을 외면한 채 홀로 우뚝 선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시선 속에서 지역의 아픔과 희생을 외면해 왔다면, 이제는 반대급부로 지역의 시선 속에서 안타까운 희생과 고통을 먼저 살펴봐야 하며 국가와 민족만을 우선시하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3) 교육 방법

① 개요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15>와 같다. 주제에 맞춰 학습 목표를 정한 후 학습 과정에 따라 진행한다. 학습 과정은 <표 16>과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점을 대비하며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도입단계, 다음으로 <표 17>과 같이 패널토론을 통해 주요 입장을 깊이 있게 다루보는 전개단계, 그리고 <표 18>과 같이 상대편으로 입장을 바꿔 특정 상황을 가정한 역할토론을 진행하는 확장단계, 마지막으로 <표 19>와 같이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는 정리단계로 구성하였다.

72) 네이버지식백과 국역고려사세가(<https://terms.naver.com>), 『고려사』 권27, 세가 27, 원종 15년(1274) 2월 갑자일 자료, 검색일: 2020.12.1.

〈표 15〉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개요

주제		지역사에서 안타까운 인물은 누구인가? -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타까운 인물이 생겨난 이유와 당시 상황에 대해 학습한다. · 삼별초 항몽의 진행 과정과 항몽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본다. · 제주민이 처한 당시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 - 안타까운 인물에 대한 인식 정도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삼별초의 외세 저항 추모와 제주민이 받은 수난 사이의 간극,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생들이 고찰하도록 한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과정	도입	삼별초 항몽과 당시의 제주민에 대한 기본 사실들을 핵심 위주로 설명	1 / 3 차시
		[주의 환기] 동영상 자료 활용 [참여 유도] 간단한 질문을 통한 참여 유도 [기본 사실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 봉기 → 제주 입거 → 삼별초 몰락까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 · 제주의 남송과 일본 침략 동원, 몽골 직할지 운영을 설명 · 삼별초 봉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학습 · 당시 제주가 처한 상황, 제주민의 입장과 맞은 수난, 이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학습 	
	전개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에 대한 패널토론 진행	2 / 3 차시
		[토론 소개] 패널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 설명 [패널 배치] 선정된 패널의 자리를 배치 [주제 제시] 강의실 전면에 주요 주제를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 [토론 진행] 패널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진행 안내] 입장의 변화와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설명 [토론 진행] 역할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확장	A, B, C그룹의 입장을 바꿔 역할토론을 진행	3-1 / 3 차시
[진행 안내] 입장의 변화와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설명 [토론 진행] 역할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정리	토론 정리 및 유사 사례 제시	3-2 / 3 차시	

	<p>[토론 정리] 토론 주제 중심으로 내용 정리, 교육생 의견 청취</p> <p>[사례 제시] 유사 사례를 제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찰 권고</p>
--	--

② 1차시, 도입단계

<표 16>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도입

도입	삼별초 항몽과 당시의 제주민에 대한 기본 사실들을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	
	[주의 환기] (5분)	- 삼별초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KBS 역사저널 그날'의 '영상한국사103 무신정권의 특수부대, 삼별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kyO63nlhdk)으로 시작한다.
	[참여 유도] (5분)	- 교육생들이 '삼별초', '항과두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하도록 한다.
	[기본 사실 전달]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 봉기 → 제주 입거 → 삼별초 몰락까지 시간 순서대로 학습 · 개경환도 반대, 봉기, 진도 입거, 진도 함락, 제주 입거, 항과두리성 축조, 남해안 침략, 여·몽연합군의 공격, 항과두리성 함락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한다. · '제주 항과두리 항몽유적'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ngpa-dori)의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다. · 삼별초 몰락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KBS 역사저널 그날'의 '영상한국사109 삼별초의 항전, 막을 내리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mOl60WUUEGo))을 보여준다. - 제주의 몽골군 잔류와 직할지 운영을 학습 · 일본 원정 준비에 동원, 몽골의 100여년간 직할지 운영에 대해 설명한다. - 삼별초 봉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학습 · 반란, 민족적 항거, 민의 저항, 제주민의 피해 등을 설명한다. - 당시 제주의 상황과 제주민의 입장에 대해 학습 · 고려에 대한 제주민의 반란, 고려 수비군의 방어시설 구축 동원, 삼별초의 항과두리성 축조 동원 등에 대해 설명한다.

③ 2차시, 전개단계

<표 17>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전개

전개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에 대한 패널토론 진행	
	[토론 소개] (5분)	- 패널토론 진행 순서와 방식 설명 ① 핵심 주제 내에서 토론 ② A그룹, B그룹, C그룹 세 개의 입장으로 나누어 진행 · A그룹: 고려 군인 · B그룹: 삼별초 군인 · C그룹: 제주민 ③ 패널토론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패널 배치] (5분)	- 선정된 패널의 자리를 배치 ① A그룹, B그룹, C그룹에 각각 2~3명으로 구성 ② 강의실 전면의 좌측과 중앙과 우측에 배치하되, 청중과 각 그룹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구도를 형성
	[주제 제시] (5분)	- 강의실 전면에 주요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 ① 삼별초 항몽의 의미(반란, 외세 저항, 민의 저항)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② 삼별초의 항몽에 대한 당시 제주민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③ 제주도의 피해와 희생은 왜 관심받지 못했을까? ④ 지금의 항몽유적지가 제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⑤ 항몽유적지를 개선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 진행] (25분)	- 패널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10분)	-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④ 3-1차시, 확장단계

<표 18>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확장

A그룹, B그룹, C그룹의 입장을 바꿔 역할토론을 진행	
[진행 안내] (5분)	입장을 변화와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설명 ① 도지사의 당선 공약인 항몽유적지 확장, 추가개발을 위한 공청회 상황 가정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그룹: 김통정 장군 문중 대표로,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의 위대함이 표현되도록 최대한 넓게, 크게, 화려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 · B그룹: 확장, 추가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대표로, 유적지가 제주에 의미가 없으며 추가 개발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모두 반대하는 입장. · C그룹: 항몽유적지 개발사업 기획 담당 공무원으로, 개발은 추진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생색만 내고 최소한으로 진행하려는 입장. <p>② 역할토론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p>
	[토론 진행] (20분)	- 역할토론을 진행
	[질의 응답] (10분)	- 청중과 패널 간 및 청중 간 질의응답을 진행

⑤ 3-2차시, 정리단계

<표 19>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 - 정리

정리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유사한 사례를 제시
	[토론 정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토론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 -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 ·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항몽, 제주의 희생과 이에 대한 무관심 등에 대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발표
	[사례 제시]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기 권고 · 영화 고지전(2011년, 감독 장훈) 줄거리 소개, 관람 권고 · 한국전쟁 중반부, 동부전선 최전방 애록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치열한 쟁탈전을 소재로 한 영화 · 애국의지와 생존의지, 적군과 아군의 불분명한 구분, 작은 명분들에 희생되는 군인, 승자는 없이 피해만 남긴 전쟁 등 다양한 시선의 고찰이 가능

2. 교육프로그램 적용

1) 교육대상: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생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로 하고 대학 신입생 수준의 성인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인원은 30명 내외로 가정하고 교육 시간은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1차시에 50분씩 총 3차시로 구성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국책 특수대학으로 전국 각 주요 지역마다 캠퍼스와 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며 1년제 비학위과정인 전문기술과정⁷³⁾을 주요 과정으로 한다. 교육내용을 기술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술교육이 대부분으로, 교양교육은 <표 20>과 같이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며 지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교육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1년에 총 1,400시간을 교육하되 그중에 교양교육 시간은 연간 60시간이며, 과목으로는 3과목뿐이다.

<표 20>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전문기술과정 교양과목 현황

교양과목명	교육 내용	교육훈련 시간
직업과 사회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직업윤리, 자기개발	20
참인폴리텍	경력개발, 기술이해, 기술선택, 기술적용, 조직이해 등	20
건강과 능력개발		20

출처: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2021학년도 대학요람, 연구자 재구성

지역의 우수한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나 지역사 교육은 운영하지 않으며 실습률이 87.4%⁷⁴⁾에 이르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만을 지향한다. 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단순 기술인력 양성에만 머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시

73)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는 2021학년도에 2년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입학정원 25명, 1년제 비학위과정인 ‘전문기술과정’의 입학정원 210명을 각각 운영 중이다.

74)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는 2021학년도에 1년제 비학위과정인 ‘전문기술과정’으로 5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학과별로 연간 교육시간은 1,400시간에 이른다. 5개 학과의 이론시간 총계는 880(12.6%)시간, 실습시간 총계는 6,120(87.4%)시간이다.

선과 입장에 공감하고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며 미래에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기에는 특강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반응과 교육 효과를 살펴본 후 점진적인 확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과 편성이 어렵다면 학습동아리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 소재에 맞춰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교육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육방법: 토론의 도입

(1) 토론 도입의 목적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평생에 걸쳐 익혀야 하는 필수 역량을 생애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대학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7가지 역량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리더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능력을 제시하였다.⁷⁵⁾ 이 연구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토론식 수업을 적용하였는데, 특히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 자신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 능력으로 점차 복잡해지며 개인만의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적용하기 힘들어지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이다. 문제해결력은 직면한 문제점을 명료하게 분석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낸 후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선택해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다. 실행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설득하며 합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해진다.⁷⁶⁾

토론을 통한 교육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발표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자와의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재정립하며 가장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⁷⁷⁾ 토론

75) 유현숙·김남희·김안나·김태준·이만희·장수명(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76) 채영희(2015), 「대학생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 사례」, 『사고와 표현』 8-1, pp.10-12.

77) 임철성(2002), 「'교육 토론'의 모형과 의의」, 『광주초등국어교육연구』 5, p.23.

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자는 반드시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는 없으며 토론 과정을 통해 토론 참여자와 청중이 새롭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스스로 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점이 토의와 토론이 다른 부분이다. 토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사고의 과정으로 하나의 결론에 이르도록 협의하는 경향이 크지만,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대립되는 의견은 조정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기에 여러가지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78)

(2) 패널토론과 역할토론의 도입

연구자는 토론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패널토론과 역할토론을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였으며 패널토론을 우선 진행하고 다음으로 역할토론을 진행토록 구성하였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공감하고 해당 사안을 비판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연구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패널토론⁷⁹⁾은 특정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패널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후 다시 청중을 포함해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 인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다른 토론 유형보다 많은 교육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발표를 꺼리는 태도,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다른 이의 의견에 편승하려는 풍토, 설명식 학습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 토론 전개 능력의 부족 등 교육 현장의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도 유리하다. 패널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진행될수록 교육생들이 논쟁점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켜, 토론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던 교육생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논쟁적 토론을 통해 교육생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추론하며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한 후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⁸⁰⁾

역할토론은 교육생들에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여 그 역

78) 임철성(2002), 앞의 논문, pp.12-13.

79) '패널토론'은 토론 형식의 하나로, 토론 주제와 토론자가 미리 정하여진 공개 토론회이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경험·흥미를 가진 4~6명의 대표자가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한 후에 청중들이 참여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7.12, 검색어: '패널토론'.

80) 박강용(2000), 「쟁점 중심 사회과에서 패널식 대의 토론 학습과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60-62; 조한주(2004), 「패널식 토론을 활용한 역사과 학습지도 모형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9-10.

할에 이입한 채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역할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토론과 달리 교육생들의 흥미 유발이 쉽고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집중하다가 토론이 불필요하게 과열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의견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역할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는 첫째, 주어진 논제에 대해 사전에 교육생들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자가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한다. 두번째, 역할토론을 위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역할을 배분한 후 교육생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 되어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한다. 이때 교육자는 토론 참여자끼리 대립과 갈등을 일삼는 논쟁이 아니라 다른 역할에 공감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토론이 되도록 해야 한다.⁸¹⁾

(3) 교육 진행 및 유의점

교육프로그램 단계별로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유의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지식을 전달한다.

학습에 필요한 기본 사실을 기존의 일반론과 지역 중심적 시각이나 새로운 시각과 대비하며 강의식으로 전달한다. 이때 핵심 개념들 위주로 간략히 진행하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 자료, 유튜브 영상, 이미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생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 전달할 내용을 진행 단계에 맞춰 핵심어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과 느낌 등을 질문하며 교육생의 참여를 계속 유도한다.

둘째,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 교육생 전원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2~3명으로 구성된 패널그룹을 A와 B, 2개로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패널그룹은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토론을 진행할 핵심 질문들을 강의실 전면에 표시하고 강의실 전면 좌·우에 각 패널그룹을 배치한다. A와 B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도록 입장을 부여한다. 토론 초기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 교육자가 첫 번째 핵심 질문을 A 또는 B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반대 그룹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며 패널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전면에 표시된 핵심 질문들을 벗어나는 경우 교육

81) 김혜련(2012), 「역할 토론을 활용한 토론 지도 방법」, 『돈암어문학』 25, pp.251-252.

자가 개입한다. 패널간의 토론이 마무리되면 청중 역할을 하던 교육생들이 양 패널그룹에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준다.

셋째, 특정 상황을 가정한 역할토론을 진행한다.

A와 B에게 지금까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역할을 부여하며 그 역할에 맞춰 수행할 과제를 부여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 앞의 토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며, 그 입장을 벗어나는 경우 교육자가 개입한다. 과제 수행 후 다시 청중 역할의 교육생들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도록 한다. 토론을 반복해서 실행하기에 토론자와 청중은 토론의 규칙에 익숙해지고 토론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교육자의 개입 영역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

넷째, 교육생별로 자신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토록 한다.

교육자는 토론을 진행했던 핵심 질문들을 순서대로 다시 짚어가며 패널토론과 역할토론 중 나왔던 주요한 주장들을 간략히 요약한다. 이에 대해 교육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자가 학습 주제와 유사한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스스로 학습해보도록 권고한다.

이런 토론을 통한 교육은 교육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때는 특정 교육생에 의해 토론이 주도되지 않도록 하며, 소외되는 교육생이 없도록 발언 기회를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 패널그룹이 지정된 입장을 벗어난 의견을 말할 때는 이를 제지하고 지정된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토론 중 조롱이나 인신공격, 고성과 원색적인 비난이 등장할 경우 이를 금지하며 상대 패널이 적대적 세력이 아니며 함께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료임을 강조한다. 토론 중 특정 패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최종 발언 기회를 주어 균형을 찾도록 한다. 교육생의 의견을 정리할 때는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중 유사한 것은 취합하고 주제를 벗어난 것은 제외하며 종합,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자의 준비나 자질이 부족할 경우 토론의 진행이나 정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생이 자신만의 의견과 문제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준다는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없기에 교육자의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충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4) 토론 실행 모형

교육자가 패널토론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패널을 선정 한 후 <표21>과 같이 토론을 준비한다.

<표 21> 토론 사전준비 단계

학습과정	진행 내용
<p>사전 안내와 패널 선정</p>	<p>교육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에 교육생에게 교육 소재와 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② 희망자를 우선하여 패널을 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③ 패널에게 토론의 진행 순서와 방법을 이해시킨다. ④ 패널과 교육자료를 공유하며 사전학습과 토론 준비를 요구한다.
<p>토론 준비</p>	<p>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수집, 토론 주제별 논거 마련 등 자료를 정리한다. ② 토론을 연습하고 주제와 근거, 주장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③ 그룹내 주장을 일치시키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확정한다. ④ 그룹내 발표 순서와 대표 발표자를 결정한다. ⑤ ① ~ ④의 내용을 정리하여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 교육자에게 전달한다. <p>교육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론개요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한다. ② 교육자료와 토론자의 토론 개요서를 온라인으로 교육생과 공유한다.

출처: 연구자 작성

앞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에서 소개했듯이 교육자는 토론의 진행 순서와 방식을 교육생에게 설명하고 선정된 패널(A그룹과 B그룹에 각각 3명씩을 가정)을 강의실 전면 좌·우에 자리를 배치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토론 주제들을 강의실 전면에 제시하고 패널토론을 <표 22>와 같이 진행한다. 발언시간 제한 등 토론 범위와 규칙을 지키는 정도에서만 교육자가 관여하며 토론 내용이나 학생 의견에 대한 개입은 자제한다.

〈표 22〉 토론 진행 단계

학습과정	진행내용
문제 제시	교육자 ① 첫 번째 토론 주제를 핵심 쟁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한다.
토론 진행	토론자 ① A그룹 제1토론자: 발제 ② B그룹 제1토론자: 발제 ③ A그룹 제2토론자: A그룹 제1토론자 주장 보완 및 B그룹 제1토론자 주장 반박 ④ B그룹 제2토론자: B그룹 제1토론자 주장 보완 및 A그룹 제2토론자 주장 반박 ⑤ A그룹 제3토론자: A그룹 제2토론자 주장 보완 및 B그룹 제2토론자 주장 반박 ⑥ B그룹 제3토론자: B그룹 제2토론자 주장 보완 및 A그룹 제2토론자 주장 반박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	토론자 ① A그룹: B그룹 주장이 발생시키는 문제점 지적, A그룹 해결방안 제시 ② B그룹: A그룹 주장이 발생시키는 문제점 지적, B그룹 해결방안 제시
청중 참여	청중 ① 청중 1: A그룹 의견을 보완하고 B그룹 의견을 반박 ② 청중 2: B그룹 의견을 보완하고 청중1 의견을 반박
최종 발언	교육자 ① A그룹과 B그룹 중 불리했던 그룹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 - 불리한 그룹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과정 생략
문제 정리	교육자 ① 토론에서 등장한 주요 주장과 쟁점들을 정리한다.

출처: 연구자 작성

교육자는 연구자가 제시한 토론 주제들에 대해 각각 〈표22〉와 같은 학습과정을 반복하며 마지막 토론 주제까지 진행한 후 〈표 23〉과 같이 토론을 마무리한다.

〈표 23〉 토론 마무리 단계

학습과정	진행내용
종합발표	토론자 및 청중 ① A그룹: A그룹의 주장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 ② B그룹: B그룹의 주장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 ③ 청중1: A그룹의 주장 중 일부를 찬성, 일부를 반박 ④ 청중2: B그룹의 주장 중 일부를 찬성, 일부를 반박

취합·분류	교육자 ① 각 토론에서 등장한 주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취합·분류한다. - A그룹의 주장 중 핵심 사항 - B그룹의 주장 중 핵심 사항 - A그룹과 B그룹의 주장에 속하지 않으나 새롭게 언급된 것 중 중요한 사항
평가 및 과제	교육자 ① 교육생의 토론에 임하는 태도와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의 적절성 등 부족했던 사항들을 평가한다. ② 교육생의 추천과 교육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 토론 우수자를 각각 1명씩 선정한다. 교육생 ① 교육생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 토론 진행 및 참여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여(1페이지 이내) 온라인 제출하고 다른 교육생과 공유한다.

출처: 연구자 작성

3) 교육적 효과

지금까지 지역의 전설 ‘이어도’, 지역이 존경하는 인물 ‘김만덕’, 지역사에서 안타까운 인물 ‘삼별초 항몽 당시의 제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교육생들이 1차시 강의식 교육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지역의 전설과 인물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해보는 경험을 하고, 2차시 패널토론에서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그 의문의 사고 범위를 넓혀가며, 3차시 역할토론과 유사 사례의 제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의견을 확인하며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프로그램별로 각각의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시된 소재 중의 하나일 뿐이며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이 다양한 의견과 가능성을 접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어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전설을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게 된다. 또한 이어도 전설을 가진 제주민으로서 이어도 주변 해역의 개발과 해양과학기지의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정부와 지방 당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만덕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이라 생각했던 것을 다른 시

각과 다양한 입장으로 접근해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를 자선가만이 아니라 신분적 한계와 여성이라는 제약을 초월하며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에도 충실했던 입체적인 인물로 기억하며 그녀의 삶에 대해 깊이 조망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이데올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역사를 대할 때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에 둔 시각으로 역사관을 전환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고 평가함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도록 지역의 고통과 희생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현상과 갖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오늘과 더욱 복잡해질 내일에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서로 다른 시선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구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활용한 교육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토론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험이 쌓이면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만의 해결방안을 찾아 미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은 지역사 교육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로, 더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교육생이 친숙하게 느끼며 접근하기 편한 주변의 이야기가 교육 소재이므로 흥미 유발이 쉽고, 다양한 해석과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쉽게 공감 가능하기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설과 존경받는 인물과 재조명이 필요한 인물은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 소재로서 충분한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 기반하여 이 연구의 교육프로그램은 제주 지역을 사례로 한 지역사 교육의 소재로서 전설로는 ‘이어도’, 존경받는 인물로는 ‘의인(義人) 김만덕’, 재조명이 필요한 인물로는 ‘삼별초 항몽 당시의 제주 민’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기존의 국가적, 민족적 시각이 아닌 지역 중심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 진행을 1차시, 2차시, 3차시 단계별로 구분하였는데, 1차시에서는 기존 일반론을 새로운 시각과 대비하여 강의식으로 전달한다. 2차시에서는 패널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고 사고 범위를 확장토록 하며, 3차시에서는 입장

을 반대로 바꿔 특정 상황에 따른 역할토론을 진행하며 가치관을 재정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고 과정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소재로서 유사 사례를 제시토록 하였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이어도는 이상향의 섬을 군사적, 경제적 목적 때문에 수중 암초로 정의하는 것이 제주의 관점에서 올바른지를 다루었고, 김만덕은 그녀를 연구하고 추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삼별초 항몽의 제주민에서는 삼별초 항몽의 역사적 의미에만 관심을 두며 계속 소외되고 있는 제주민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연구는 지역과 지역사의 개념,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 토론을 통한 교육, 제주를 중심으로 한 교육 소재별 역사적 문헌 등을 검토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한정하였다.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기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생들의 반응까지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거쳐 교육내용과 프로그램 진행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교육을 새롭게 접근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며 지역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만덕기념사업회(2007), 『恩光衍世(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 유현숙·김남희·김안나·김태준·이만희·장수명(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윤용혁(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 이영권(2005),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2008),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 채제공(1796), 『만덕전』.
- 최태정(1997), 「향토사 학습의 원리와 지도」,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2021), 『대학요람 2021~2022』,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 한동구 저, 고영자 역(2017), 『제주도 삼다의 통곡사』, 제주시 우당도서관.
- 홍순만(2014), 『사연따라 칠백리 - 제주도 역사의 현장을 찾아-』, 제주문화원.

2. 논문

- 김나영(2019), 「18·19세기 제주사회와 김만덕 생애 재고찰」, 『역사민속학』 56, pp. 141-192.
- 김상태(2007), 「중학교 국사교육에서 충북 지역사 학습」,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2005), 「향토 자료의 활용을 통한 역사학습 지도방안과 효과: 경기도 의정

- 부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2010), 「중학교 국사 교육과 지역사 학습: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련(2012), 「역할 토론을 활용한 토론 지도 방법», 『돈암어문학』 25, pp. 243-270.
- 도윤지(2013),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순덕(2020), 「제사 의례로 추모되는 제주 여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 김만덕, 고씨, 박씨, 홍윤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3, pp.59-89.
- 박강용(2000), 「쟁점 중심 사회과에서 패널식 대의 토론 학습과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부원(2014), 「역사교육에서의 향토사 활용방안 연구: 강릉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주(2014), 「지역정체성 향상을 위한 지역박물관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안산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화자(2000), 「주제접근법을 통한 향토사 교재의 지도 방안», 『역사교육논집』 26, pp.241-274.
- 백록어문학회(2001), 「제주시 외도동 현지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17, pp.193-385.
- 성낙찬(2010), 「보령지역 향토사료를 활용한 국사교육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효현(2009), 「해저지명의 국제표준화와 한국의 해저지명», 『한국문화역사지리학 회 2009년 학술대회 자료집』, pp.109-125.
- 송성대(2013),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이어도 연구』 4, pp.57-95.
- 송춘영(1990),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郷土史)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 논집』 13, pp.1-34.
- 신용균(2017), 「거창지역의 기록과 지역사교육», 『역사교육』 141, pp.197-219.
- 신형석(2017), 「지역 사회 문화자원을 활용한 현장 학습 수업 방안 연구: 노원구 백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정필(2017), 「18세기 후반 김만덕의 경제활동 재고찰」, 『사학연구』 125, pp.229-269.
- 양정필(2018), 「원 간섭기 탐라인의 해상 활동과 이어도」, 『제주도연구』 49, pp. 1-30.
- 유승광(2003), 「향토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7, pp.53-84.
- 유승광(2006),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성 방안」, 『역사와 담론』 44, pp.299-332.
- 윤용혁(2011),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도서문화』 37, pp.83-114.
- 이문숙(2003), 「서천지역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국사학습 지도방안」,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호(2010), 「지방사에서 지역사로 - 인천을 사례로 하여-」, 『한국학연구』 23, pp.295-325.
- 이정신(2000), 「[사실, 이렇게 본다1] 삼별초의 항쟁」, 『내일을 여는 역사』 2, pp. 72-85.
- 임병조·류제현(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pp.582-600.
- 임철성(2002), 「‘교육 토론’의 모형과 의의」, 『광주초등국어교육연구』 5, pp. 1-25.
- 정현주(2012), 「예산 역사문화의 특징과 역사교육 활용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한주(2004), 「패널식 토론을 활용한 역사과 학습지도 모형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난숙(2008),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중학교 국사 수업 방안 연구: 경기도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사지리학회지』 8-2, pp.1-17.
- 허영란(2017),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pp.347-379.

- 황선희(2008),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 지역사 학습자료 활용방안: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성우(2010),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지역” 개념에 대한 단상」, 『Russia & Russian Federation』 1-1, pp.36-41.
- 황현정(2015), 「지역사 수업의 실행과 정체성 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pp.147-171.

3. 신문 및 인터넷 언론 기사

- 강승철, 『부산일보』 (2012.4.3), “바다 속 보물섬 찾기”, 검색일: 2020.8.7.
- 고은이, 『제민일보』 (2020.1.29), “지난해 항공여객 역대 최고...제주공항 40.7% 성장”, 검색일: 2020.12.6.
- 김관용, 『이데일리』 (2019.11.29), “中군용기, 또 韓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이어도~울진 앞바다 비행”, 검색일: 2020.8.7.
- 김보근, 『한겨레』 (2014.9.22), “중국 영해선 확장 야망... 이어도 분쟁화 대비해야”, 검색일: 2020.8.7.
- 김선영, 『세계일보』 (2013.11.27), “이어도 전략적 가치는...수출입 물량 90% 통과 해상교통 요지”, 검색일: 2020.8.7.
- 김진규, 『제주매일』 (2018.6.20), “외교분쟁 논란 ‘이어도 조례’ 3년만에 본회의로”, 검색일: 2020.8.26.
- 박미라, 『경향신문』 (2015.7.24),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조례 수년째 무산 ‘왜’... 다시 주민 발의”, 검색일: 2020.8.16.
- 박미라, 『경향신문』 (2020.1.15), “제주여행 트렌드는 ‘머무는 여행’ ‘식도락’ ‘한달 살이’”, 검색일: 2020.12.6.
- 변지철, 『연합뉴스』 (2019.11.1), “가을 제주 관광 호황... 10월 관광객 작년 대비 12% ↑”, 검색일: 2020.12.6.
- 손석민, 『SBS』 (2012.3.13), “中 ‘이어도 담판’ 제안... 정부 ‘결국 우리 수역’”, 검색일: 2020.8.7.

손영일, 『동아일보』 (2013.12.9), “[KADIZ 확대 공식 선포] 이어도 분쟁 뒤엔 자원 전쟁”, 검색일: 2020.8.7.

양금희, 『제주인 뉴스』 (2012.6.29), “양금희가 만난 진성기관장, 이어도 전설을 기록하였던 민속학자”, 검색일: 2020.8.1.

양금희, 『제주투데이』 (2017.11.22), “[양금희] ‘이어도’ 문화 계승발전 시켜야”, 검색일: 2020.8.1.

양낙규, 『아시아경제』 (2013.12.8), “한중일 왜 이어도 놓고 신경전 벌어나”, 검색일: 2020.8.7.

오은지, 『한라일보』 (2012.12.3), “이어도의 날 조례 5년만에 상임위 통과”, 검색일: 2020.8.25.

이현승, 『조선비즈』 (2015.11.25), “10월 국내선 이용자 수 사상최대.. 제주여행 증가 영향”, 검색일: 2020.12.6.

임재영, 『동아일보』 (2012.12.10), “제주로 ‘국내 이민’ 크게 늘었다”, 검색일: 2020.12.6.

임청하, 『제주신문』 (2020.8.30), “숭고한 제주인들의 삶 역사로 기억할 것”, 검색일: 2020.9.2.

좌동철, 『제주일보』 (2018.6.26), “이어도의 날 조례 또 폐기...이번이 세 번째”, 검색일 2020.8.16.

최준영, 『문화일보』 (2013.11.28), “이어도 대륙붕에 원유·천연가스 대량 매장”, 검색일: 2020.8.7.

현대성, 『뉴제주일보』 (2017.12.18), “중국 군용기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침범”, 검색일: 2020.8.7.

홍석준, 『미디어제주』 (2016.2.1), “제주 이민 열풍 작년 제주 순유입 인구 매월 1000명 이상 늘어”, 검색일: 2020.12.6.

홍진수, 『경향신문』 (2013.12.8), “[방공식별구역 확대]이어도 상공 ‘3개국 방공구역’ 겹쳐.. 최악 땀 한·중·일 전투기 동시 출격”, 검색일: 2020.8.7.

4.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7.12, 2020.8.4, 2020.8.11, 2020.8.12, 2020.8.14, 2020.9.24, 2020.11.25.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검색일: 2020.8.1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0.8.12, 2020.8.14.

네이버 지식백과 국역고려사세가(<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1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8.5.

이어도 연구회(<http://www.ieodo.kr>), 검색일: 2020.7.27, 2020.8.2, 2020.8.4, 2020.8.5.

제주특별자치도청(<https://jeju.go.kr>), 검색일: 2020.12.5.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검색일: 2020.8.15, 2020.8.16, 2020.8.17, 2020.12.12.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 검색일: 2020.7.3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https://www.khoa.go.kr>), 검색일: 2020.8.2, 2020.8.7.

【Abstrac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Region Legend and People**

- A Case of Jeju Region -

Dong-Seob Le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uses regional legends and characters to learn about regional history and reinterpret it from a new perspective.

Regions can be used in a number of concepts, from villages to countries and the world. However, in this study, it was used in the sense of including local. Education on regional history can help trainees to develop interest in the region, actively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recognize the problems facing the region, as it examines the stories that trainees can easily encounter and the lives of regional people. These methods of regional history educ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distributed approach and subjective approach, among which the researcher has adopted a subjective approach that focuses on the

region and reflects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When selecting the subject of regional history education by region, the necessary standards were prepared and the standards were applied to Jeju Island. The selection criteria considered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other regions, whether it is easy to access with familiar content, and whether it can be viewed from a critical perspective. Next, by applying this standard to Jeju Island, Regional Legend Jeodo, Regional Character Righteous Person Kim Man-deok and Jeju People as unfortunate figures in region history, and were selected. In addition, an educational program using selected materials was applied to the Korea Polytechnics Jeju Campus and developed. Specifically, the contents of education include whether Jeju lost its utopia as the legendary Jeodo became a rock, whether there is any other possibility regarding the Kim Man-deok's life, and whether Sambyeolcho to resist Mongolia was the suffering of Jeju people.

A total of three program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each educational subject, and each program consisted of the 1st, 2nd, and 3rd class. In the 1st class, the historical facts on educational subject matter a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general theories and regional perspectives and delivered in a lecture style. In the 2st class, a panel discussion is conducted by dividing the positions of the side representing the existing general theory and the side representing the regional perspective. In the 3rd class, a role discussion assuming a specific situation is conducted with the panel's position in the 2st class reversed. Finally, in the end of the 3rd class, the instructor summarizes and organizes the main discussions of the 2st and 3rd class, and then briefly introduces other similar cases, so that the student can maintain interest in the educational content and continue learning on their own.

This study was limited to designing a region history education program and did not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However, I hope that more elaborate learning models and programs will continue to be developed.

Keywords: Region, Region History Education, Jeju Island, Ieodo, Righteous
Person Kim Man-deok, Sambyeolcho to resist Mongolia